



김혜령 100년 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
경은진 100년 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100년 행복연구센터 를 개소하며



100년 인생이라는 말이 더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장수 시대가 한층 가깝게 느껴집니다. 숨만 쉬며 산다고 행복할 수는 없기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와 늘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손님의 이런 고민을 함께하고자 2020년 5월 '100년 행복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의 지휘 아래 하나은행은 물론 그룹내 관계사들의 협업을 이루어 힘차게 첫발을 내딛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주요 언론사와 기관투자가 평가에서 4년째 1위를 달성하는 '리서치 名家'입니다.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의 자산관리 노하우에 리서치센터의 경쟁력을 더하여, 향후 시니어 시장을 리드하고 '은퇴설계의 名家'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은퇴 관련 콘텐츠를 전파함으로써 인생 제2막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손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이 손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금융그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새로운 지향점으로 정했습니다. 손님과 사회공동체 그리고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모든 활동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를 지니도록 할 것입니다.

은퇴 이전의 삶이 나와 가족, 직장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내 삶의 권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 설레임으로 기대되는 은퇴!
100년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우리나라 ‘소득 크레바스(Crevasse)’는 10년 이상 길어진 채 머물러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 받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소득 크레바스는 안정적인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시기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 49.5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현재 62세에서 2034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크레바스 사이의 틈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크레바스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다. 이들이 당장 얼마나 지출하고,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앞으로 노후자금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조사했다. 더불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심적인 부적응을 겪지는 않았는지, 이후 여가생활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퇴직자의 생활비 평균 월 252만원

3명중 2명은 퇴직 전에 비해 생활비를 평균 28.7% 줄여

이런 씁쓸이는 퇴직자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괜찮은 생활수준을 위해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비 2~300만원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먹고 사는 정도’일 뿐이다. 경조사를 챙기고 사람도 만나며 여가를 즐기려면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1.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경기) 및 5대 광역시 거주자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물러났으며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지역		성별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서울	41.8	남	54.9
경기	36.4	녀	45.1
5대 광역시	21.8		

2. 조사기간: 2019년 11월~12월

3. 조사방법: 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심층 인터뷰 10명(노후준비 충분 응답자, 경제활동 여부 및 유형별)

퇴직자 대부분이 생활비를 경제활동에 의존

경제활동을 못하면 1년 내에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근심도 많아

퇴직자 중 절반(55.1%)은 재취업(37.2%)이나 창업(18.9%)을 통해 취업한 상태다. 미취업자 역시 64.8%는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업 대기자다. 퇴직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절반 이상(58.6%)이 일을 하고 있어, 부부 경제활동 비중은 84.8%로 높아진다. 경제활동중인 가구의 수입은 평균 393.7만원이다. 맞벌이는 평균 월 513.9만원, 외벌이 월 331.5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장은 일을 하지만 생활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36.4%는 일을 그만두면 당장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창업과정은?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평균 11.2개월, 생애 주된 직장과의 동종업계 취업 35.2%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눈높이를 낮추고, 인맥을 잘 활용해야”

자영업 창업 업종은 “도소매업 > 교육 > 음식점 > 부동산 임대업 순”

창업자금 마련에 퇴직금을 이용한 비중은 45.8%, 대출은 37.4%

54.2%는 노후대비를 위해 평균 월 110만원을 저축

국민연금만 제때 받고, 주택연금은 돈이 부족해질 때 활용

퇴직자에게 노후준비는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가장 많은 걱정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71.7%)’와 ‘노후자금 부족(62.0%)’이다. 여기에 ‘자녀의 결혼비용(56.2%)’까지 더해진다. 퇴직자들은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활동을 더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외에 저축을 계속하고,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여생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찾고 싶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퇴직자 대부분(72.4%)이 제 때에 받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연금을 신청하겠다는 12.3%, 늦게 받는 대신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은 15.3%를 차지한다.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을 노후준비의 비상수단으로 본다. 54.4%는 노후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65.4%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심적인 후유증을 겪어 평소 건강관리 위한 운동, 1년 2~3번 여행이 평균적인 여가모습

퇴직 후유증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퇴직 후유증은 남성이 더 많이 겪는데, 55세 이전 조기퇴직 한 남성일수록 ‘가장으로서 압박감’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들은 주로 일을 재개하면서 후유증을 털어냈다. 후유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도 큰 도움이 된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후유증을 덜 겪는다.

퇴직자들은 여가활동에 평균 하루 2.6시간, 지출액은 평균 월 14만원 쓰이며, 주로 배우자와 함께한다. 퇴직자 대부분(60.8%)은 여가가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답한다. 여가를 즐기기에 돈이 부족하거나(47.9%), 일하느라 시간이 부족한(31.3%) 현실 때문이다.

퇴직과 동시에 노후준비를 마친 金퇴족 경제활동·금융자산·부동산, ‘소득원의 분산’ 이뤄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자들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을 ‘金퇴족’으로 정의했다. 노후준비에 자신감을 가진 金퇴족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노후걱정 없이 당당하게 퇴직할 수 있었을까? 다음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퇴직 전까지 이들의 과거 자산관리 방법을 정리한 결과다.

첫째, 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노후준비 완성시기를 앞당긴다

金퇴족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에 일찍 가입했다. 金퇴족의 연금 가입률은 30대 초반에 이미 28.0%를 보였다. 40대부터는 46.3%가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했다. 그에 비해 일반 퇴직자의 경우 30대 이전 연금 가입률이 20.4%이었고, 40대 후반 되어서도 32.0%에 머물렀다.

둘째,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한다

金퇴족 4명 중 1명(26.8%)은 25세 이전부터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으로도 노후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30대 후반부터는 절반정도(47.6%)가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했다. 그 덕분에 金퇴족은 다른 퇴직자에 비해 투자관련 지식이나 정보수준에서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한다

금퇴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모은다. 금퇴족이 활용하는 정보수집 채널은 ①금융회사 자산관리 설명회 ②친구·지인(智人) ③투자정보 도서 ④인터넷 등이다. 금퇴족은 일반 퇴직자에 비해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 경험도 많다. 상담 영역은 보험(70.3%) > 은퇴자산운용(45.9%) > 세금관리(37.8%) > 상속·증여(16.2%)의 순이다.

넷째,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과 비상 노후재원을 동시에 확보한다

금퇴족 92.7%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퇴직자(74.0%)에 비해 18.7%p 많은 것이다. 생애 첫 주택 마련도 빨랐다. 절반 가까이(46.0%)가 35세가 되기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다. 금퇴족 역시 주택연금을 비상 노후재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72세에 월 174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째, 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을 만든다

금퇴족의 72,0%가 주택 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47.6%) > 토지(25.6%) > 상가(13.4%) > 오피스텔(12.2%)의 순이다. 그 덕에 금퇴족은 부부 경제활동도 있지만 금융자산, 임대소득 등 생활비 원천이 다양하다. 한마디로 금퇴족은 일찍부터 자산을 잘 운용하여 퇴직 후 소득원의 분산을 이룬 셈이다.

※카드사용 빅데이터로 본 50대의 소비는?

하나카드 사용 데이터를 통해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사는 50대의 소비를 살펴봤다
식비, 의류/잡화, 교통통신, 공과금, 의료비 등 기본 생활비는 약 145만원
여기에 운동(골프), 여행, 쇼핑센터 방문을 한 번씩 한다면 월 302만원
더불어 손자녀의 교육비까지 지원하면 월344만원

CONTENTS

I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대한민국 퇴직자

II 퇴직자의 소득 크레바스 뛰어넘기

- 1 소비, 생활비로 얼마나 지출하나
- 2 소득,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나
- 3 재취업과 창업과정 어땠나
- 4 자금운용계획

III 노후걱정 No, 金퇴족(金退族)의 비결 5가지

IV 퇴직자들의 사생활 이모저모

- 1 퇴직후유증,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오춘기(五春期)
- 2 여가생활, 즐기는는 아직 시기상조
- 3 인간관계, Business에서 인연(因緣)으로
- 4 이주, 경제성이냐 꿈이냐

V 카드사용 빅데이터로 본 50대의 소비

1.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대한민국 퇴직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까지 늦춰지는 반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세 전후에 머물러 있다. 이렇다 보니 50대 퇴직자들은 월급이 끊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여년 이상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소득 크레바스’에 빠진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당장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오랜 직장에서 퇴직 후 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지는 않았는지, 관심사·여가·인간관계·주거 등 생활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일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 보았다.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란?

직장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며, ‘온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에 퇴직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조사개요

조사 방법 온라인 정량조사

조사 지역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

조사 대상 50~64세 퇴직자 남녀
(연금 수령 前) 1,000명

조사 표본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만 50~54세	233	215	448
만 55~59세	184	160	344
만 60~64세	132	76	208
전체	549	451	1000

조사 기간 2019년 12월 3일~12월18일

일대일 개별 심층 인터뷰

서울 및 수도권

만 50~63세 퇴직자 남녀
현재 노후 자금 수준을 적당 또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자

	온퇴유형			전체
	완전온퇴형	반온퇴형	무온퇴형	
만 50~54세	1	1	2	4
만 55~59세	2	-	1	3
만 60~64세	1	2	-	3
전체	4	3	3	10

2019년 11월 26일~1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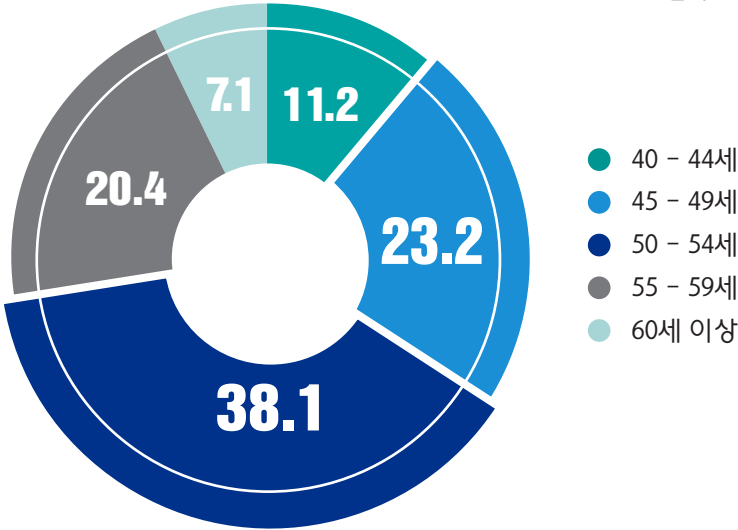
12.5년

소득 크레바스(Crevasse) 기간은 약 12.5년

생애 주된 직장(직업)에서 퇴직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40대 후반~50대 초반'에 퇴직하며, 이들이 국민연금 받는 시점까지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평균 12.5년 인 것으로 나타남

생애 주된 직장(직업)에서 퇴직한 연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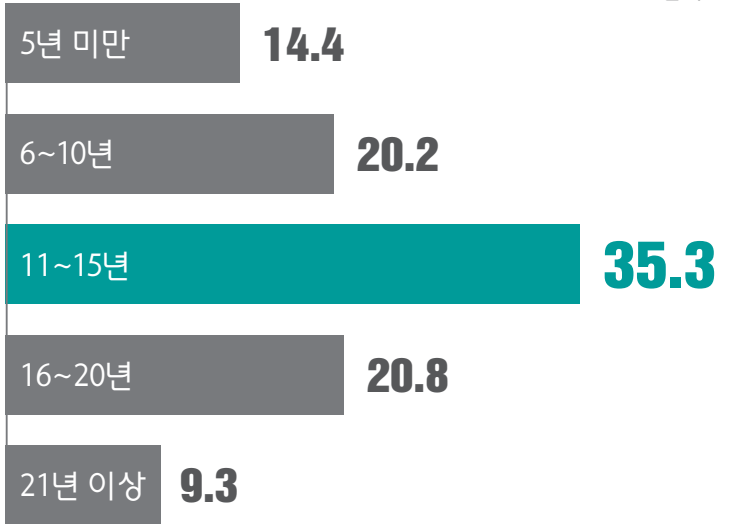


생애 주된 직장(직업)이란?

50대 현역시절까지 가장 오랜 기간 종사했고 생애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두게 한 직장(직업)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단위: %



※소득 크레바스 기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개시 연령 - 퇴직연령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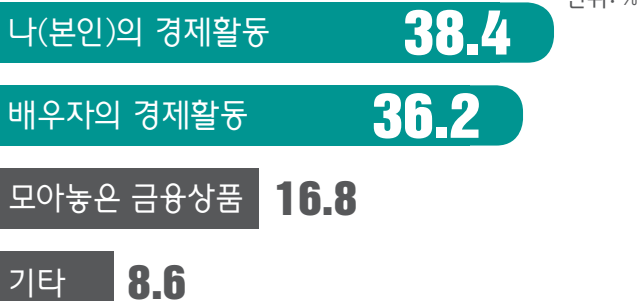
구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소득 크레바스를 건너는 퇴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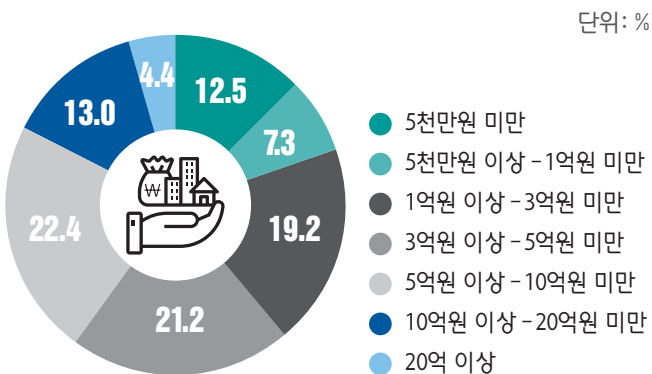


월 평균 생활비 규모
25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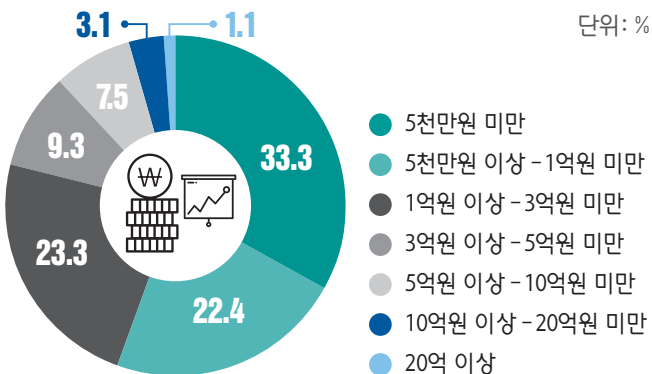
현재 생활비 주된 마련 방법



전체자산 규모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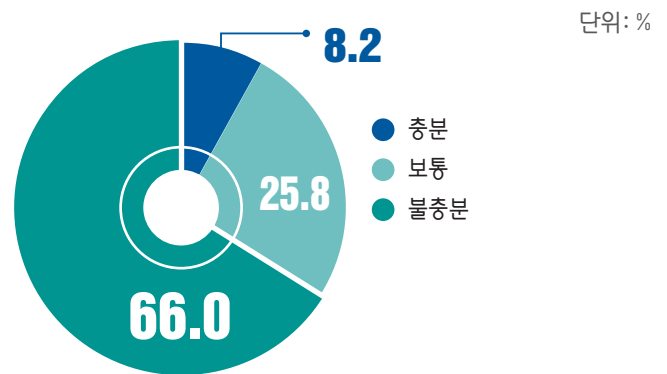


월 평균 가구 경제활동 소득
334만원
(퇴직자 개인 월 25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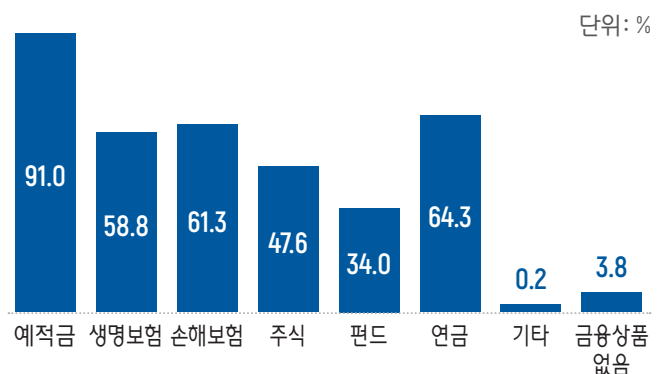
퇴직 후 경제활동 여부



노후자금 준비 수준



금융자산 유형별 보유 여부



퇴직자의 소득 크레바스 뛰어넘기

1. 소비
2. 소득
3. 재취업과 창업과정
4. 자금운용계획

2.

1. 소비

퇴직 후 생활비를 약 29% 줄여 평균 월 252만원 지출



퇴직 후 재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 전 대비 약 28.7% 정도 생활비를 감축했으며 평균 생활비는
월 252만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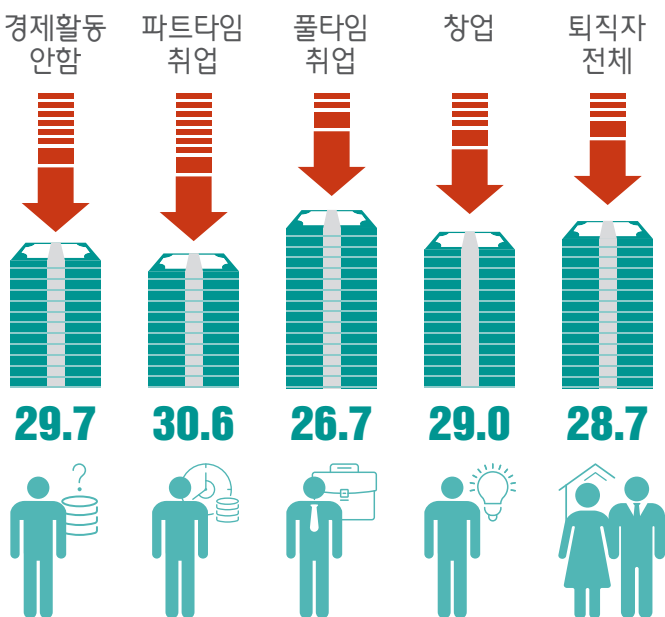
경제활동 유형별 퇴직 전후 생활비 변화

단위: %

생활비 변화	경제활동 안함	파트타임 취업	풀타임 취업	창업	전체
생활비를 줄임	62.4	70.9	65.6	56.4	62.8
퇴직 전과 비슷함	30.5	20.0	28.1	34.6	29.9
생활비가 늘어남	7.1	9.1	6.3	8.9	7.3

경제활동 유형별 평균 생활비 하락폭

단위: %



※ 생활비를 줄인 퇴직자 628명

경제활동 유형별 월 평균 생활비



경제활동 유형	평균 생활비
경제활동 안함	232.2 만원
파트타임 취업	234.6 만원
풀타임 취업	267.6 만원
창업	277.8 만원
퇴직자 전체	251.7 만원

1. 소비

괜찮은 생활수준을 위해서는 월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괜찮은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 생활비(300만원) + 여가생활비 = 월 4~500만원” 필요



“먹고만 사는 시대가 아니다”

“먹고야 살겠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즐기면서 사는 지. 남들 소주 먹을 때 양주도 먹을 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옛날처럼 밥 먹고 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런 건 있어요”

“경조사도 만만찮고, 여행도 가려면”

“생각보다 경조사 비용이 커요. 둘이 300이면 충분한데, 여행 간다고 하면.. 월 500은 필요하죠”



“내가 쓰려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월 100만원은 나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부담 없이 놀고 가려면 400에서 500은 돼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 관리비 기본적으로 20~4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 20에, 아프면 돈 나가고, 보험료, 공과금 이런 게 내가 쓰지 않아도 100이 나가요.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가 혼자 사는데 170이 든다고 하는데, 둘이 그렇게 산다면 200으로는 그냥 사는 정도죠. 400~500 정도면 그래도 이제 구경도 다니고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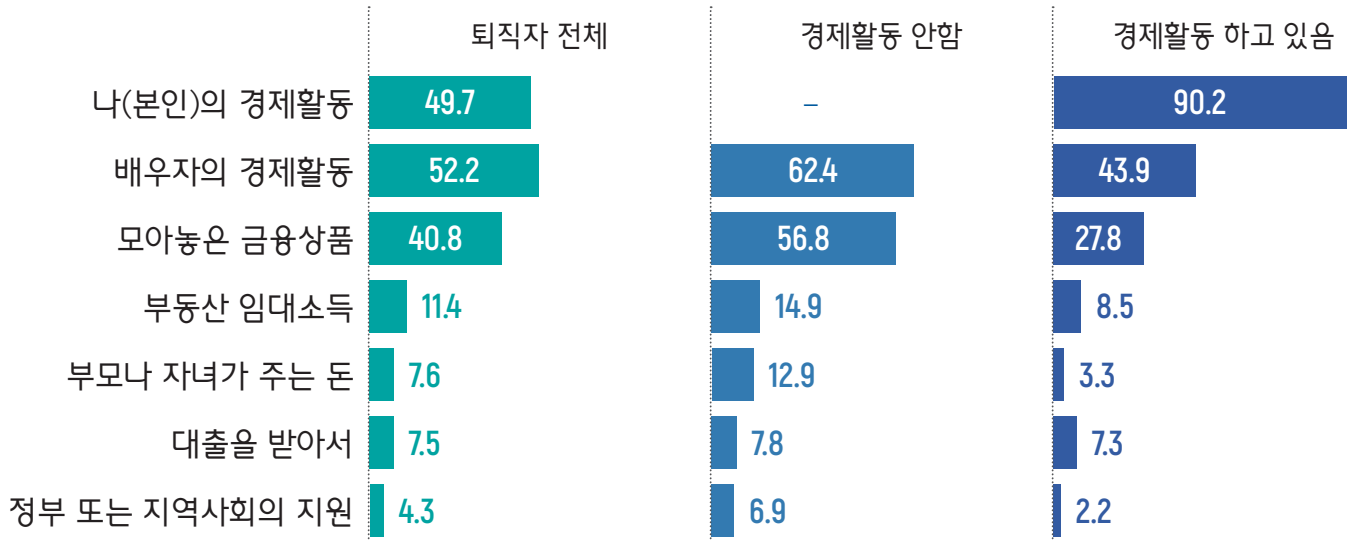
1. 소비

생활비 원천 1순위는 경제활동 경제활동 감소 시 금융자산 의존도 커져

생활비는 나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충당하며,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금융상품 활용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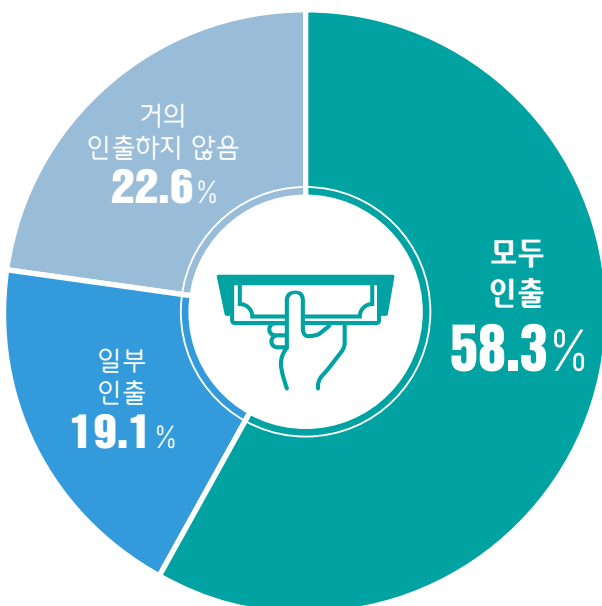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1~2순위)

단위: %



58.3%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하며 퇴직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은 26.5%에 불과

퇴직금 인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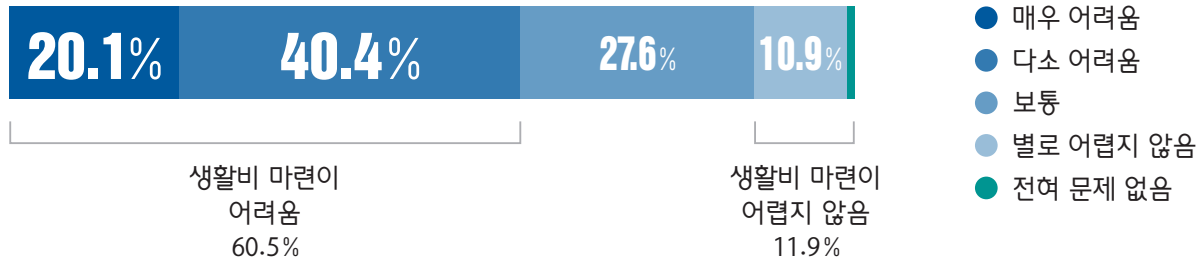
퇴직금의 사용처

생활비 보충 목적 인출 또는 연금보험 가입	26.5%
자녀지원(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	15.6%
대출 상환	12.2%
기타 투자목적	6.9%
사업자금	6.8%
주택 매입	6.5%
투자용 부동산 매입	5.5%
아직 잘 모르겠다	18.9%

1.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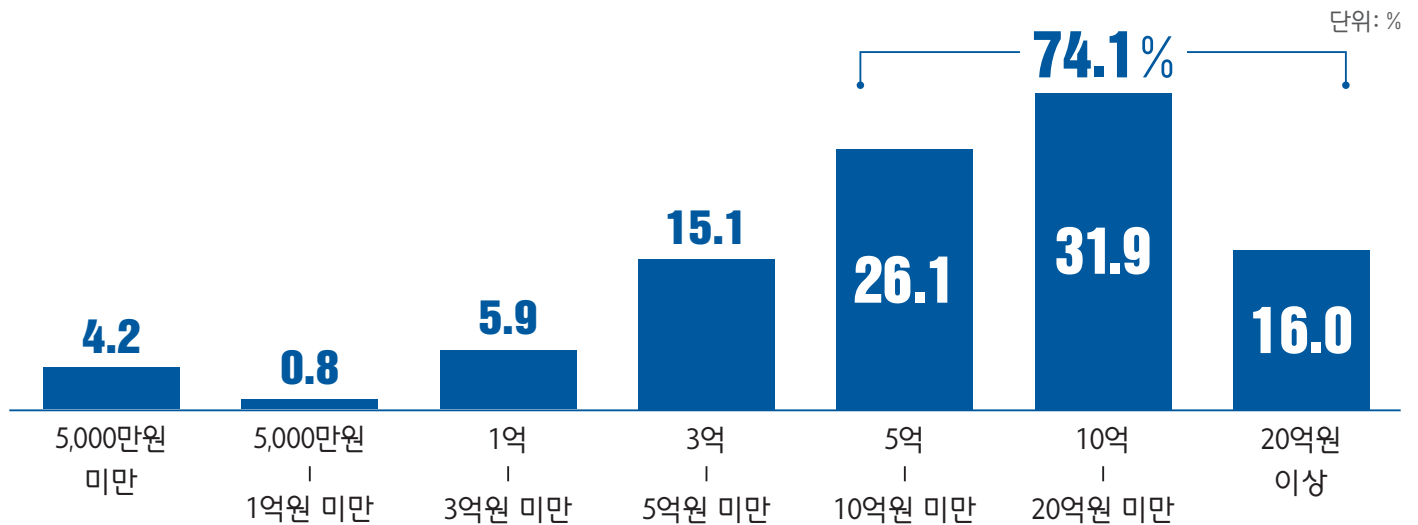
퇴직자의 60.5%가 현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퇴직자의 20.1%는 생활비 마련이 매우 어렵다고, 40.4%는 조금 어렵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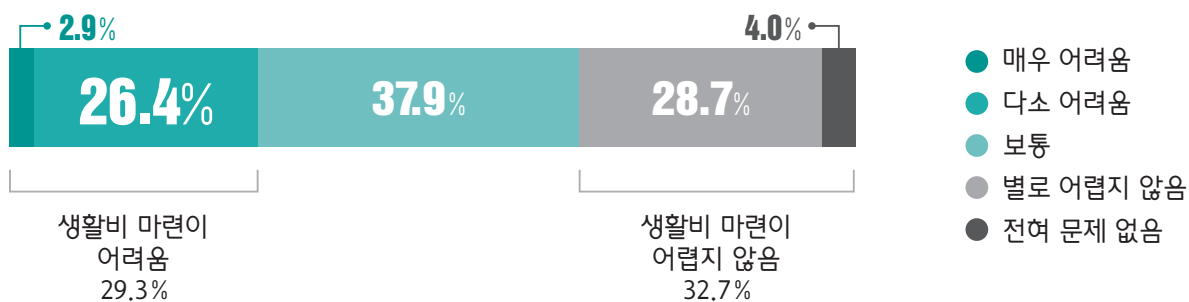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 없다는 퇴직자 중 74.1%는 총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총자산 규모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 없다고 응답한 퇴직자



■ 현재 생활비 마련 수준: 어려움이 별로 없다~충분하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7%만이 생활비 마련에 문제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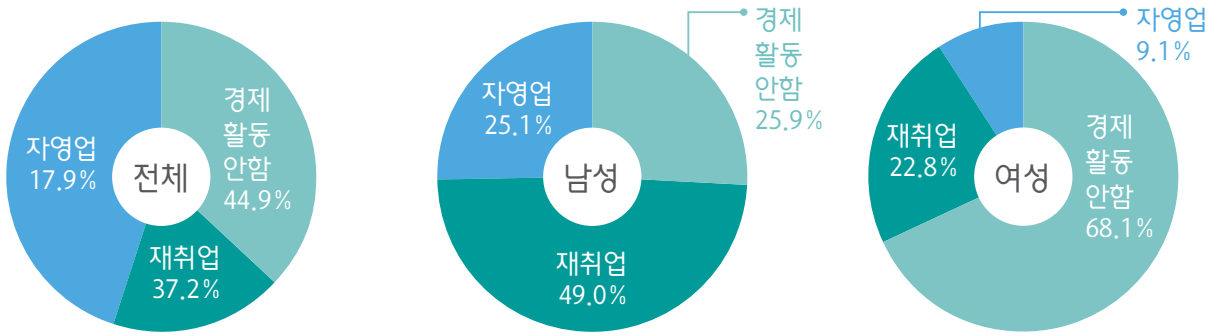
※ 전체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174명

2. 소득

퇴직자의 55.1%는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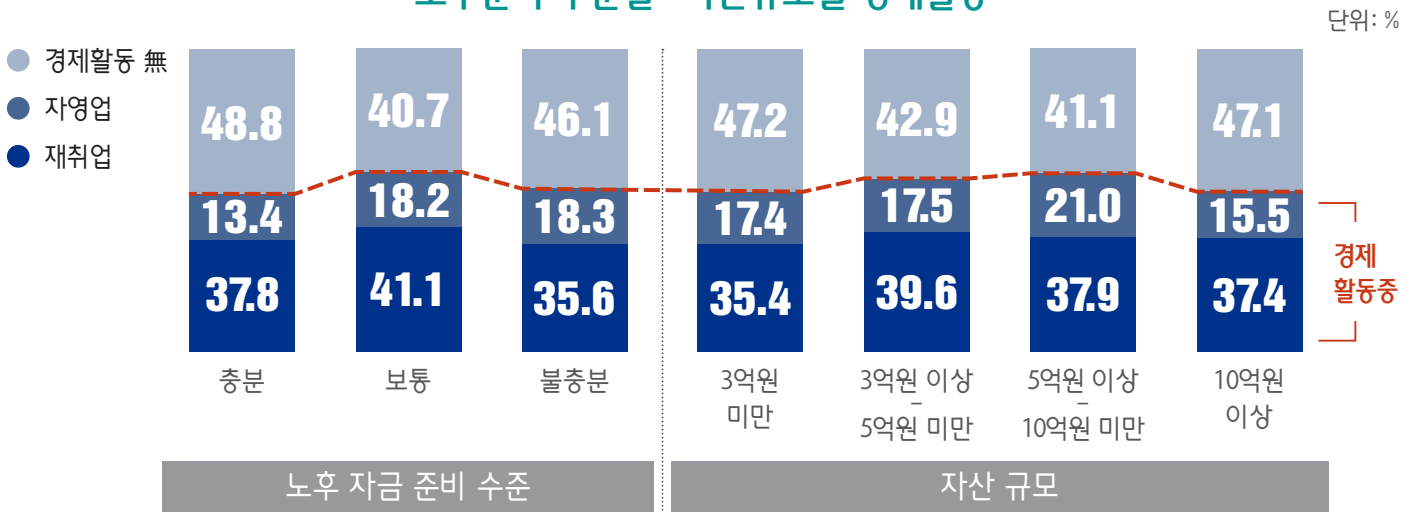
퇴직자의 37.2%는 재취업, 17.9%는 자영업을 시작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퇴직 후 경제활동을 계속함

퇴직후 경제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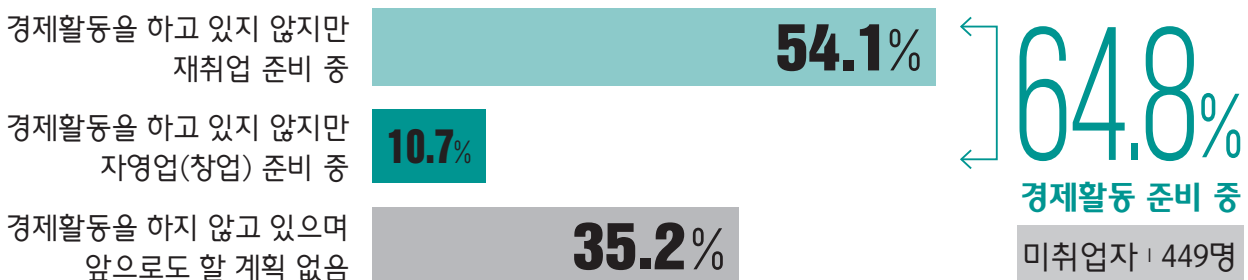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자산이 많아도 취업이나 창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준비 수준별 · 자산규모별 경제활동



미취업자 중 64.8%가 경제활동을 준비중으로, 중장년 취준생 규모가 상당

향후 경제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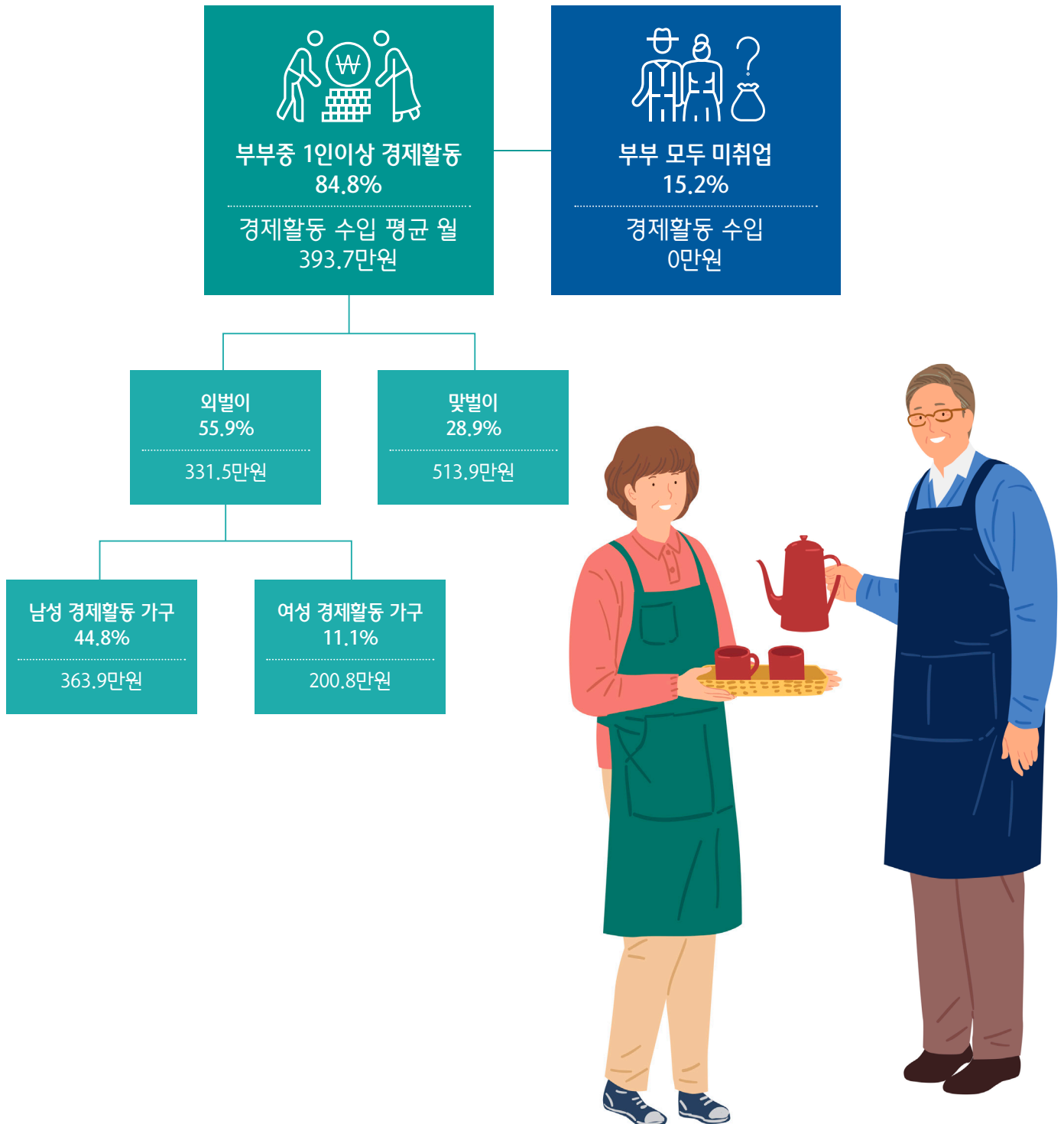


2. 소득

퇴직자 중 84.8%는 나 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 중

퇴직자 중 맞벌이 28.9%, 외벌이 55.9%, 총 84.8%가 경제활동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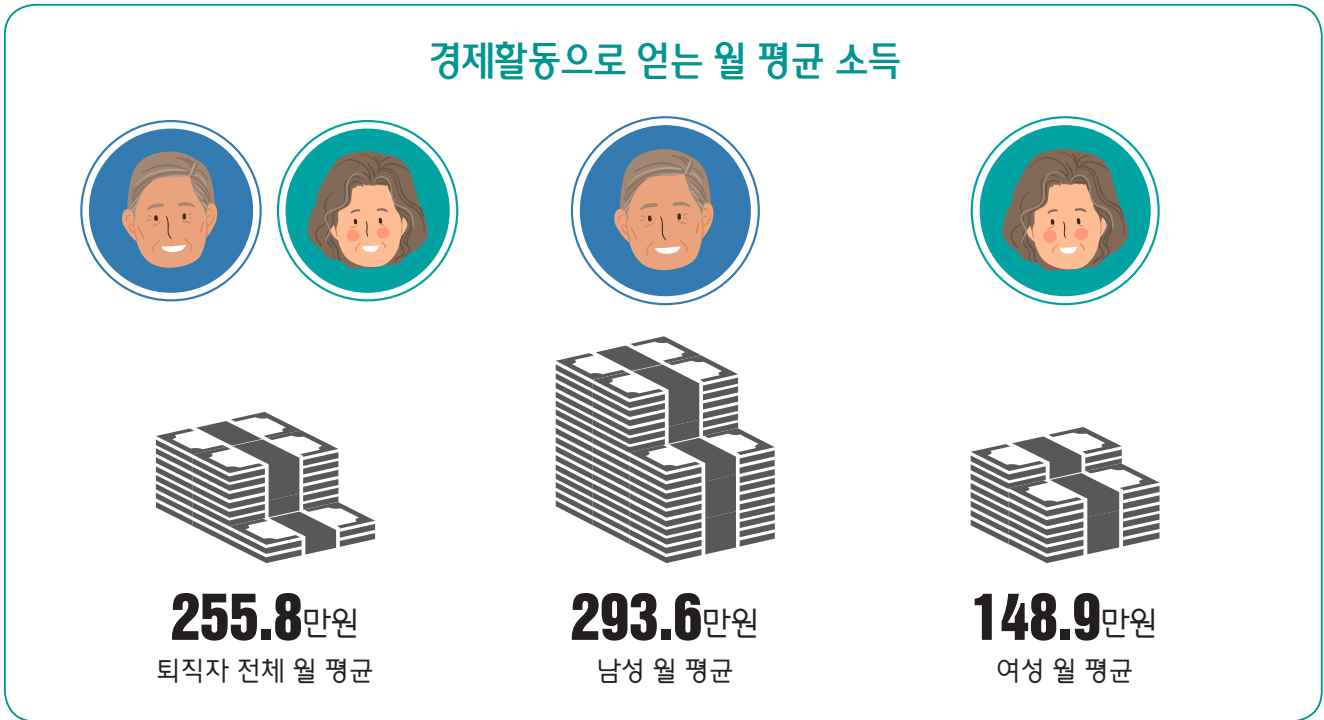
퇴직자 가구의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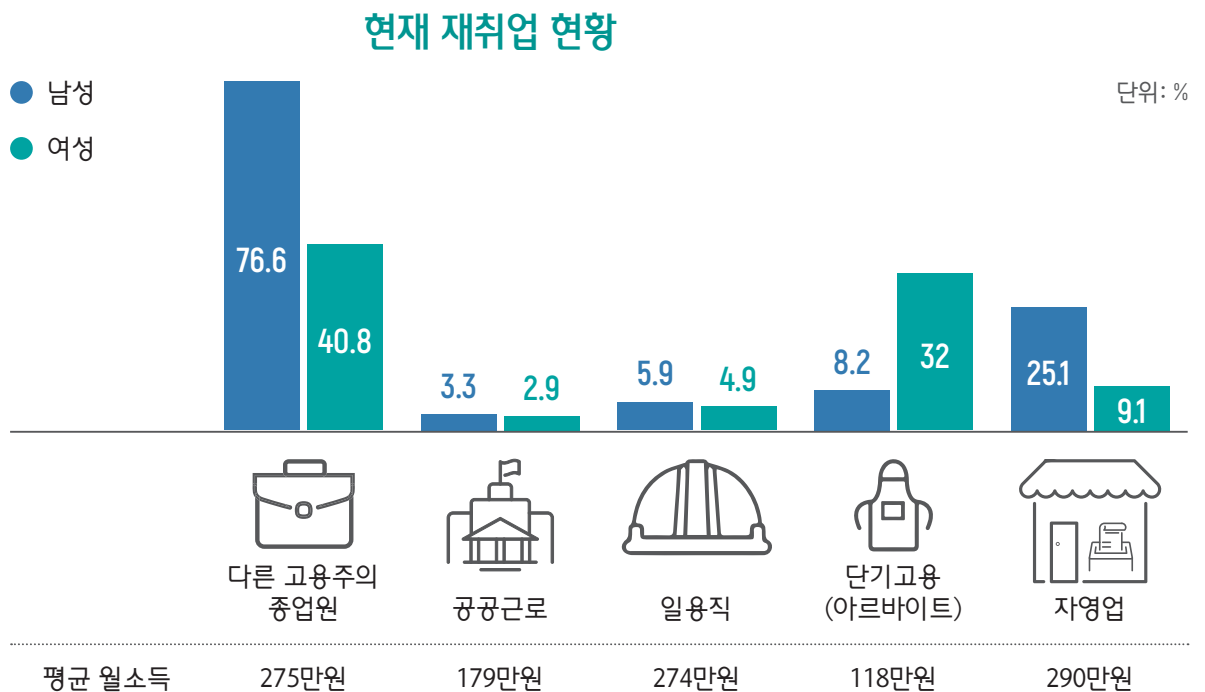
2. 소득

경제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평균 월 256만원

남성은 평균 월 294만원, 여성은 149만원으로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커



여성은 남성보다 단기고용(아르바이트) 취업이 많기 때문에 소득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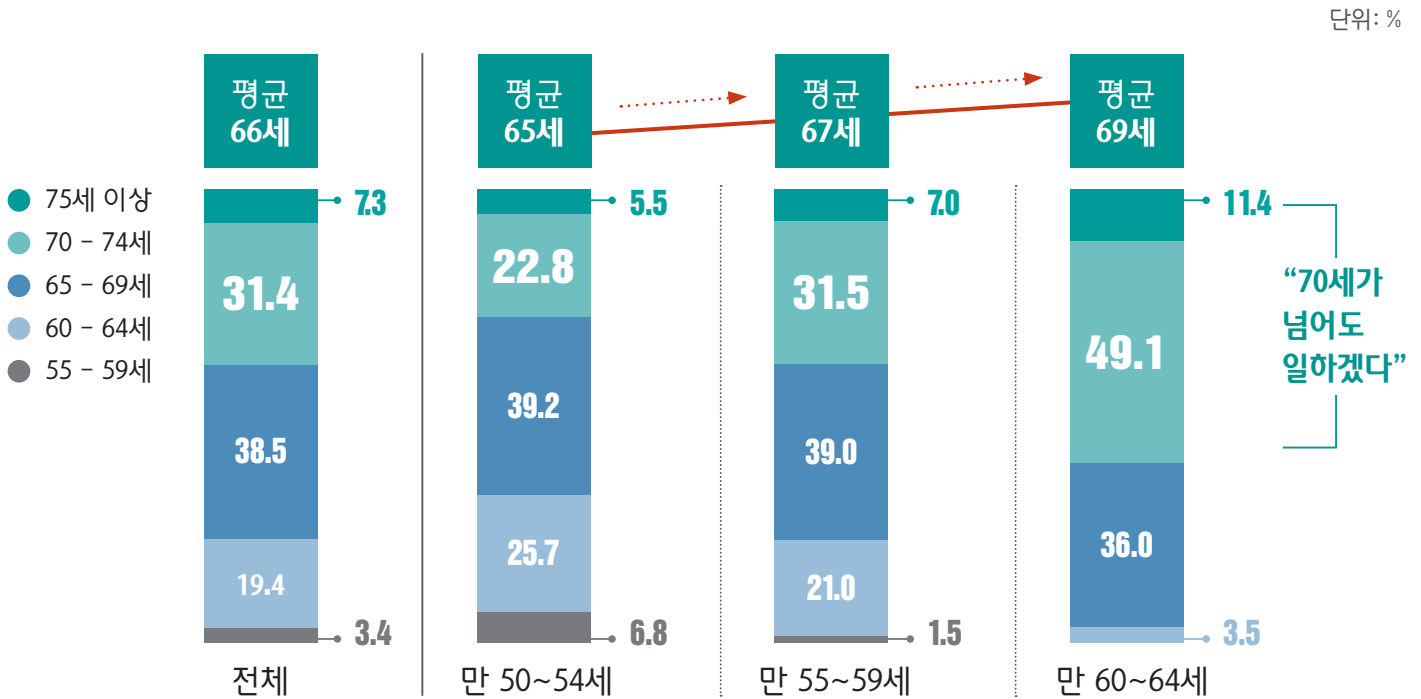


2. 소득

완전은퇴를 희망하는 시기는 평균 66세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완전 은퇴 연령도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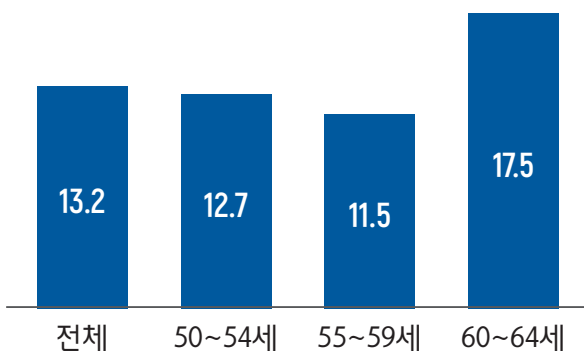
연령별 경제적 은퇴희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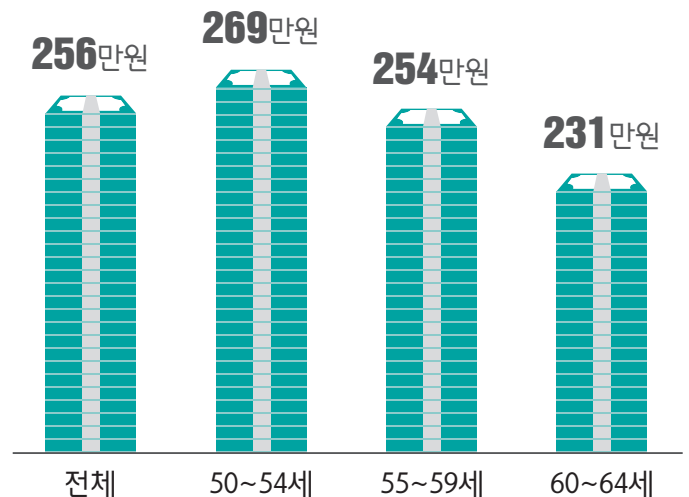
만 60세 이상인 퇴직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연령대별 현재 경제활동 소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령대별 평균 경제활동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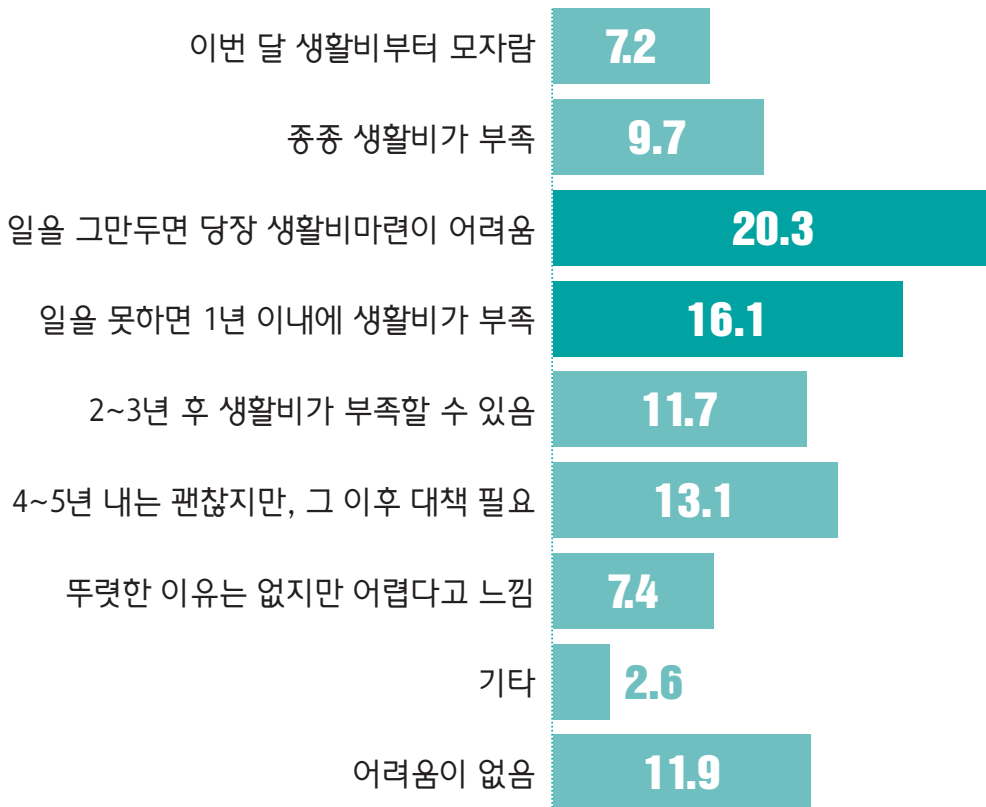
2. 소득

36.4%는 경제활동을 못하면 당장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것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는 퇴직자도 16.9%나 차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11.9%에 불과

생활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

단위: %



36.4%
경제활동 못하면
1년 이내 형편 어려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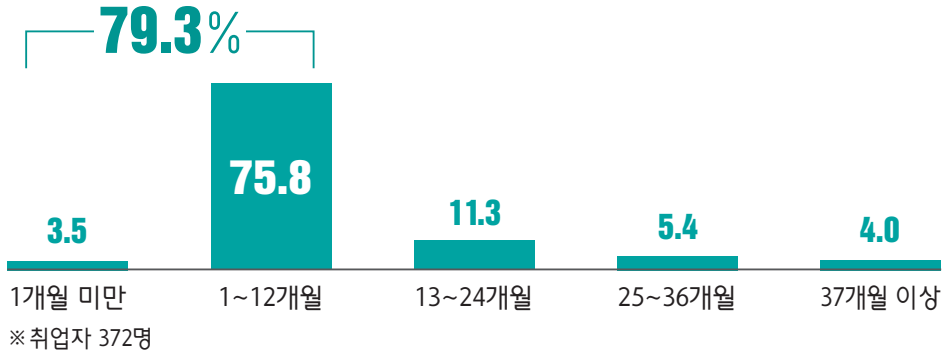
3. 재취업과 창업 과정

재취업은 업종 가리지 않고 2년 이내 성공해야

재취업 한 퇴직자들의 79.3%가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취업실패 시 재취업 성공률이 하락

재취업 성공까지 구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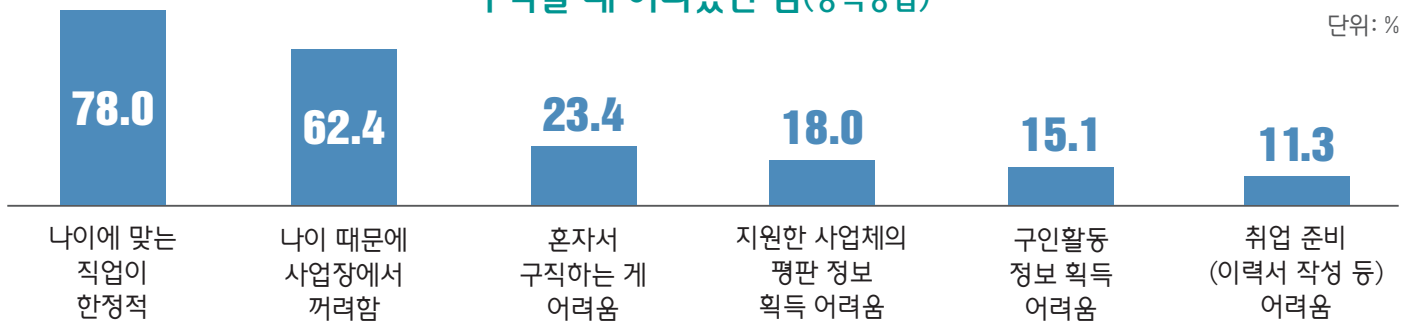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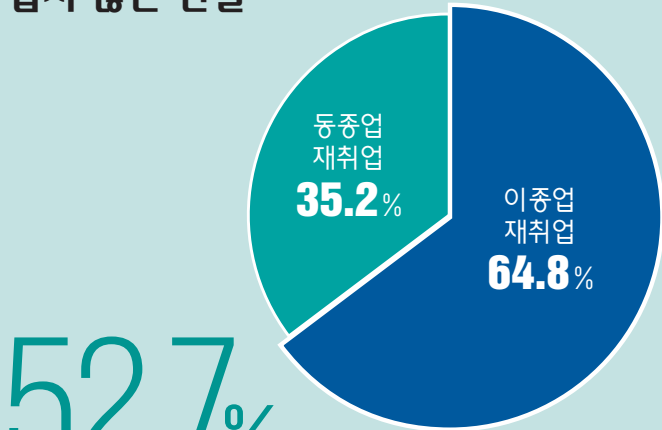
11.2개월
재취업 평균
11.2개월

구직할 때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단위: %



경력이 많아도 동종업 취업은 쉽지 않은 현실



52.7%

퇴직 전 소득 대비
재취업 직장 소득 수준

생애 주된 직업과 동종업으로 재취업은 어려움

“기존 직무와 비슷한 곳에 재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꽤 많아도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생애 주된 직업과 이종 재취업도 쉽지 않음

“경력이 크게 도움이 안 되길래, 다른 직종도 알아
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남자는 잘 안 써줘
서... 사회복지사쪽도 지원해 봤는데 나이 때문인지
면접 보러 오란 얘길 안 하네요”

3. 재취업과 창업 과정

경력관리는 기본, 눈높이를 낮추고,
지인 찬스를 활용하는게 재취업 성공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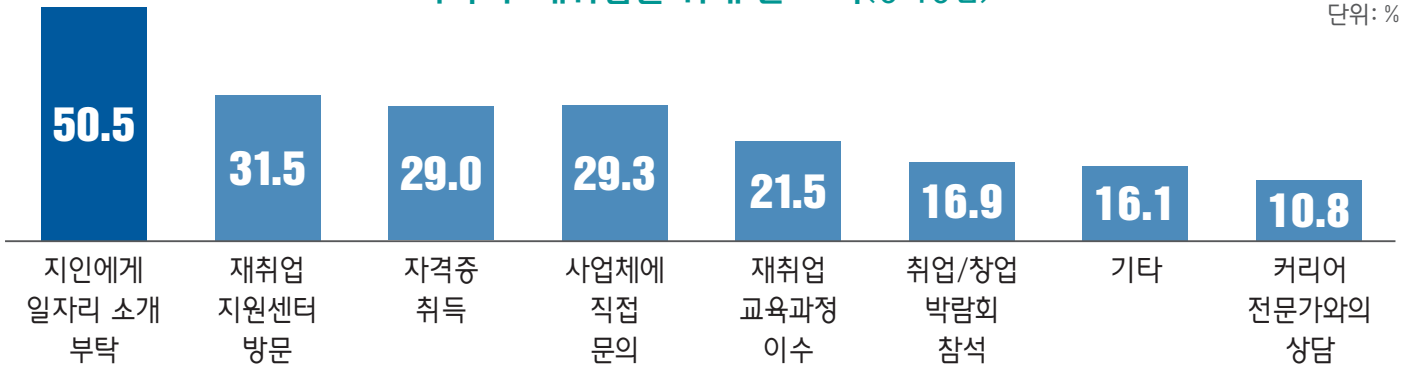
재취업 경험자들이 말하는 성공 비결 세가지

- 1 눈높이를 낮춰라
- 2 경력 관리는 기본이다
- 3 지인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해라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한 노력(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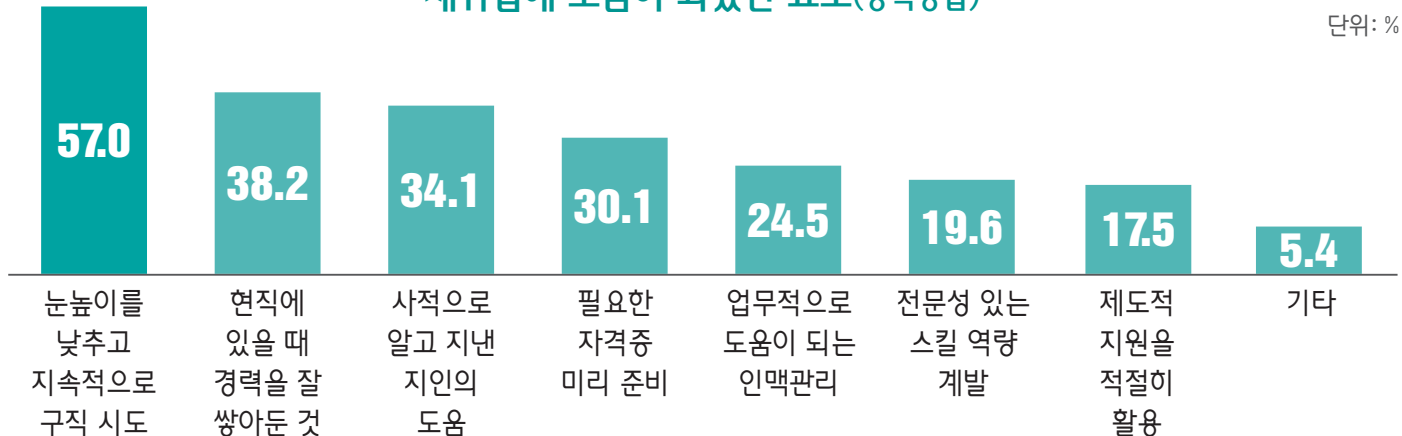
단위: %



※ 재취업자 372명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요소(중복응답)

단위: %



※ 재취업자 372명

3. 재취업과 창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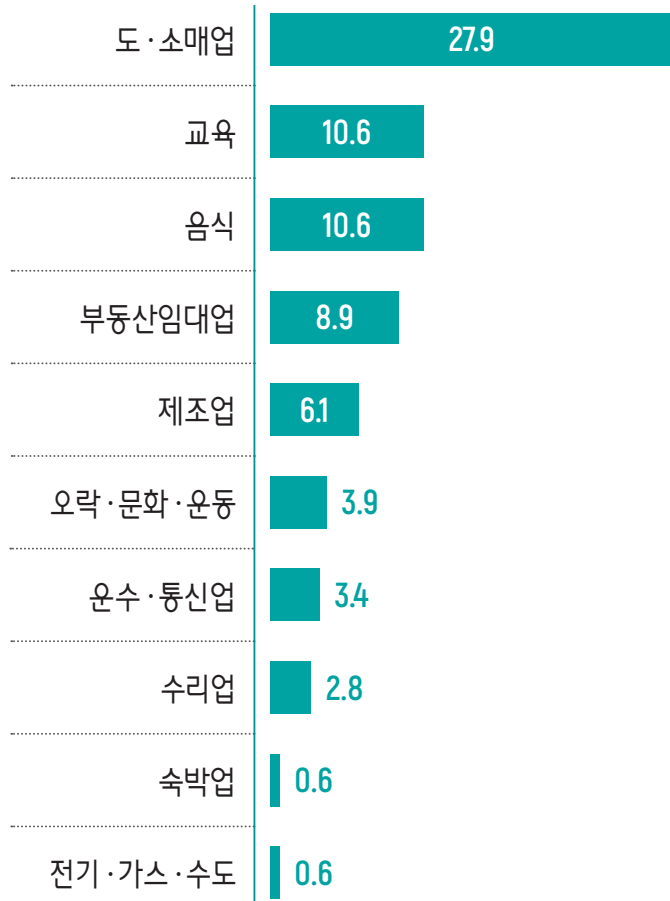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은

도·소매업 > 교육 / 음식업 > 부동산 임대업 순

남성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여성은 도·소매업과 교육업의 도전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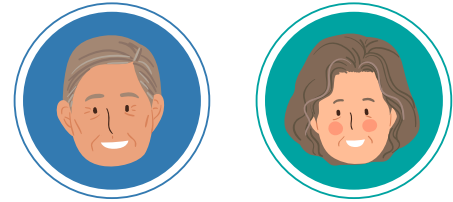
퇴직 후 창업한 자영업 업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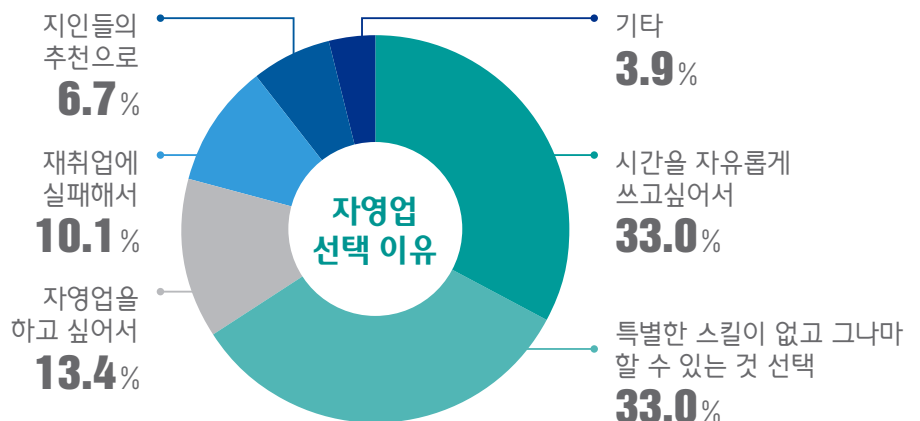
※기타 업종 24.6% 차지
자영업자 179명

성별 업종 순위



1위	도·소매업 (28.3%)	도·소매업 (26.8%)
2위	음식 (12.3%)	교육 (24.4%)
3위	부동산 임대 (9.4%)	부동산 임대 (7.3%)
4위	제조업 (7.2%)	음식 (4.9%)
5위	교육 (6.5%)	운수·통신 제조업 (각 2.4%)

창업한 퇴직자 3명 중 1명은
'그나마 할 수 있어서'
10명 중 1명은 '재취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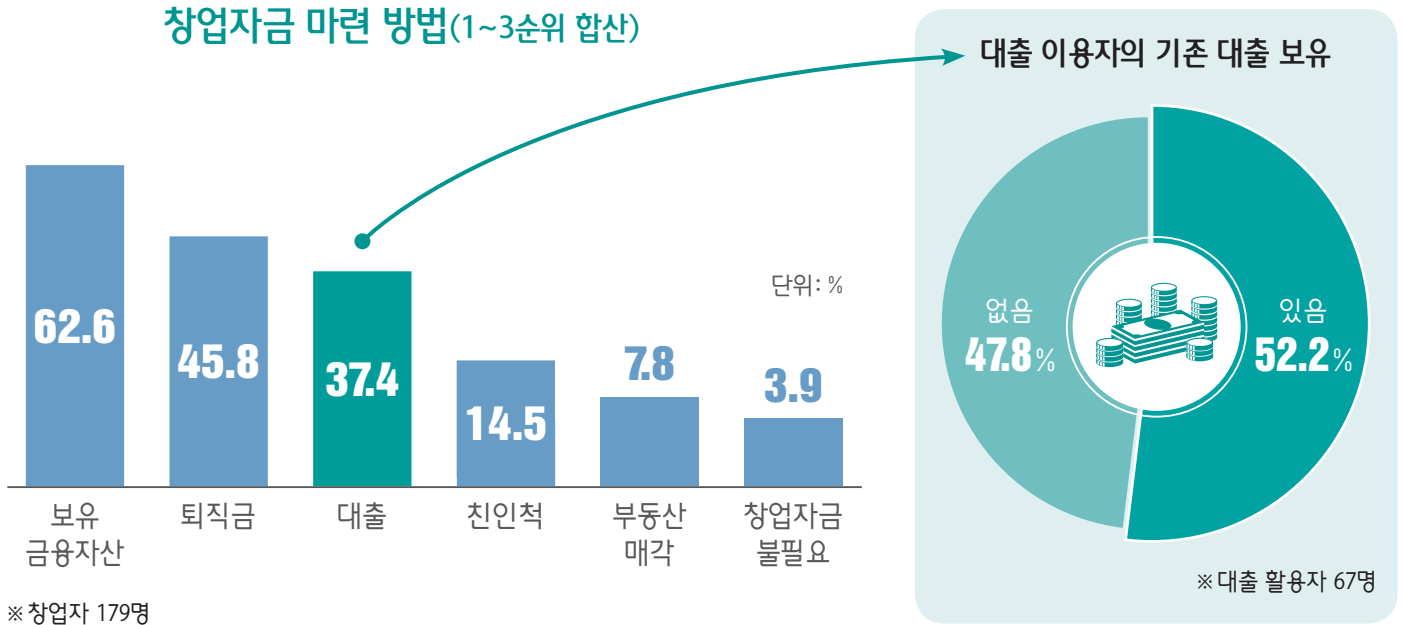


3. 재취업과 창업 과정

창업자금은 금융자산 > 퇴직금 > 대출의 순

부족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이용한 비중은 45.8%, 대출을 이용한 비중은 37.4%

창업자금 마련 방법(1~3순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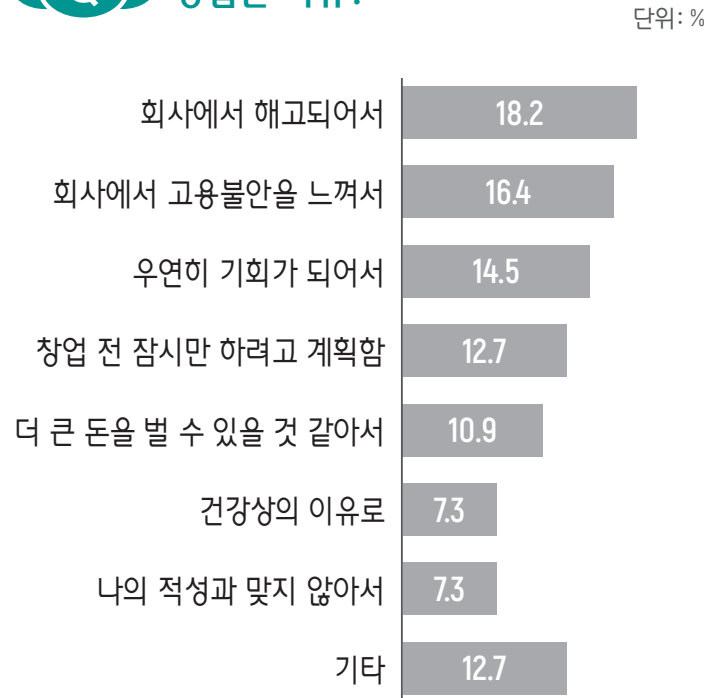
Q 창업하기 이전에 취업한 경험은?



Yes
30.7%

※ 창업자 179명

Q 일자리를 그만두고 창업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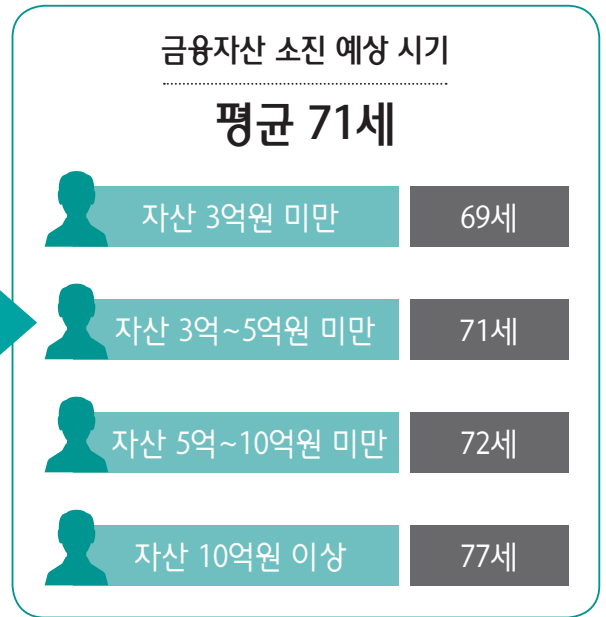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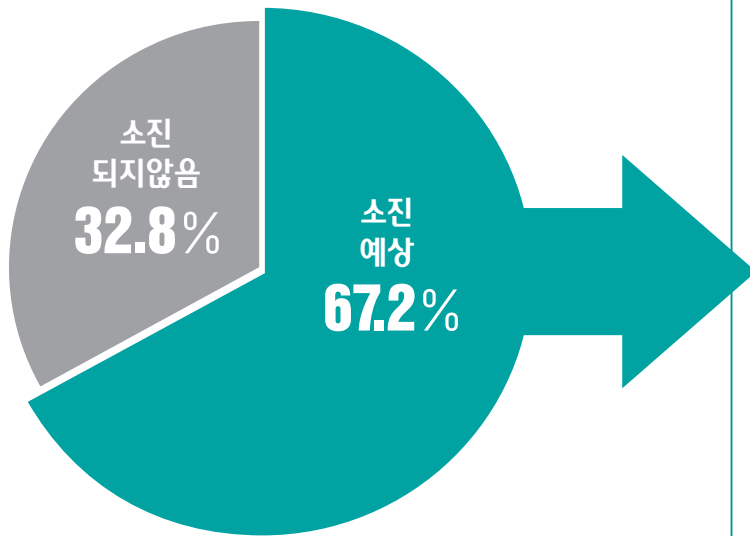
※ 재취업 퇴직후 창업한 자 55명

4. 자금운용계획

퇴직자 중 절반(54.2%)이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을 계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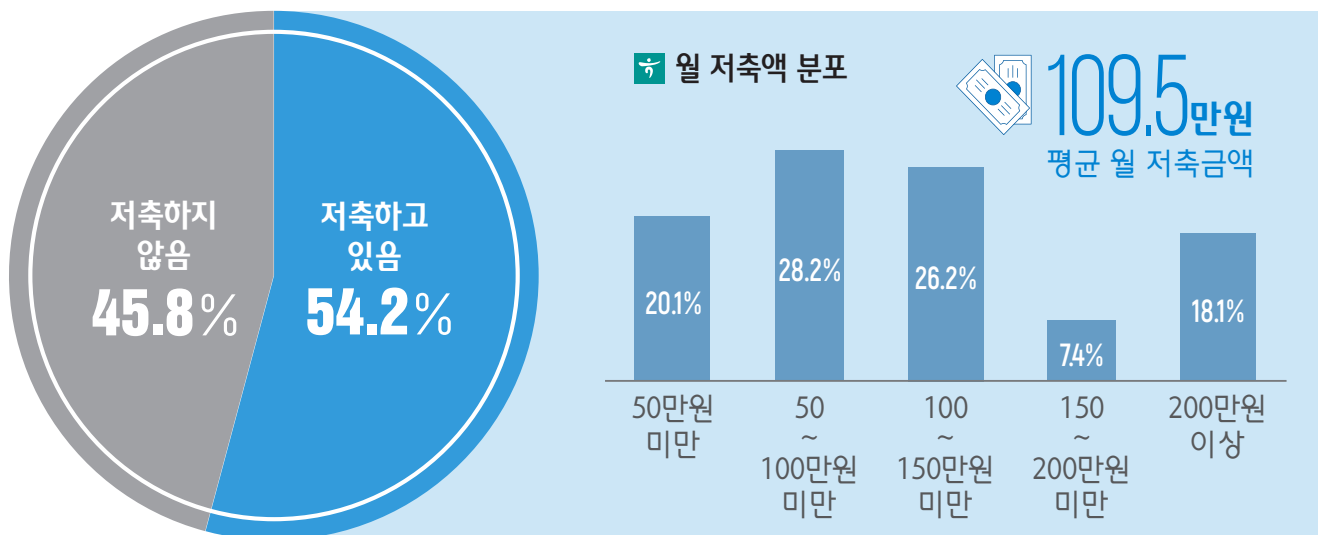
퇴직자들 중 67.2%는 언젠가 금융자산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때 소진 시기는 평균 71세로 예상하고 있음

금융자산 소진 예상 시기



퇴직자 중 54.2%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계속 저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균 월 109.5만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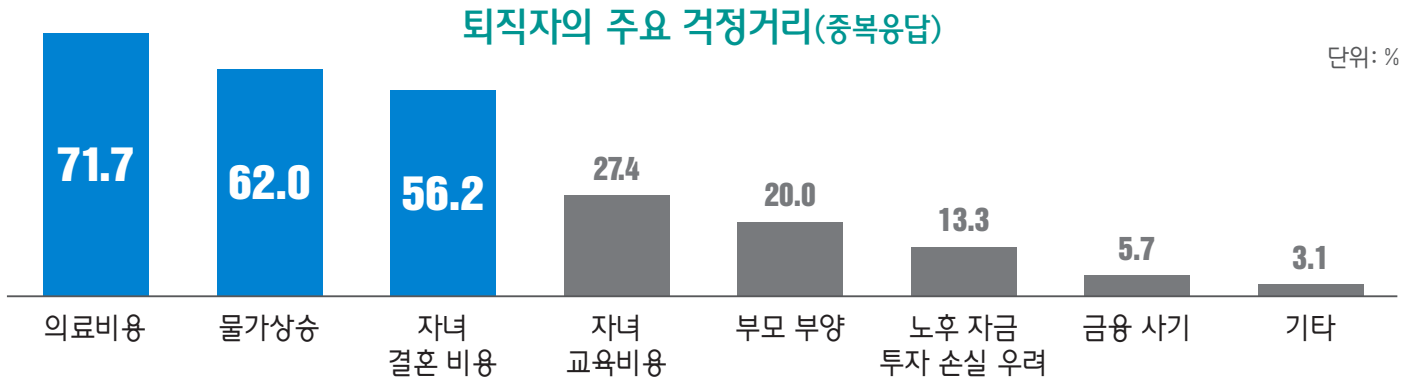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현황



4. 자금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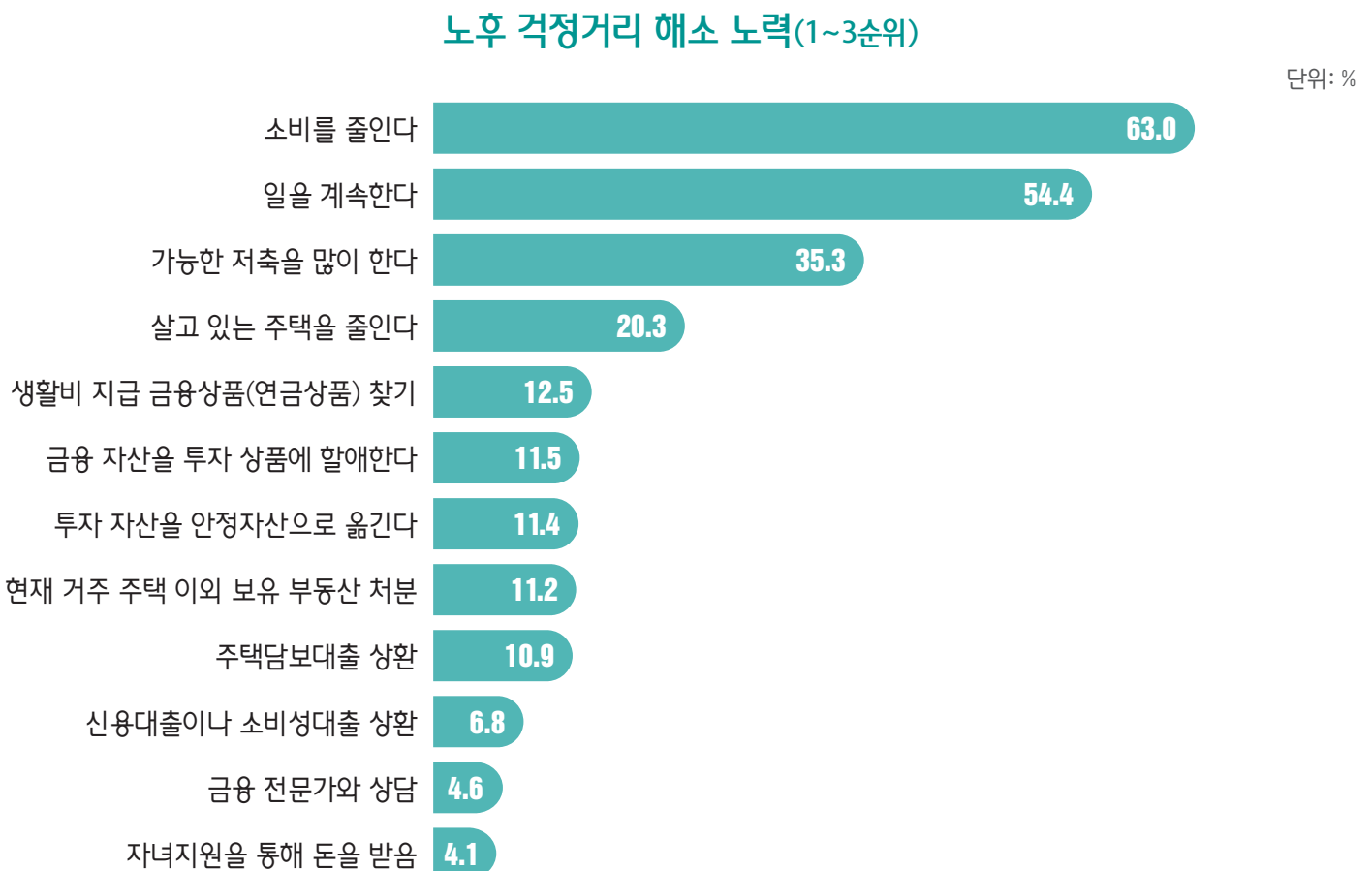
퇴직자들은 경제활동, 소비 줄이기와 더불어 저축하기, 금융상품 조정, 보유주택 활용을 계획함

노후준비에 있어 의료비용의 증가, 물가 상승, 미혼자녀의 결혼비용이 주된 걱정거리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소비를 줄이거나 경제활동 하는 것 외에, 저축하기 > 주택 줄이기 > 연금상품 찾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투자 상품을 늘린다는 계획(11.5%)도 있는 반면, 투자자산을 안정자산으로 돌리겠다는(11.4%)는 계획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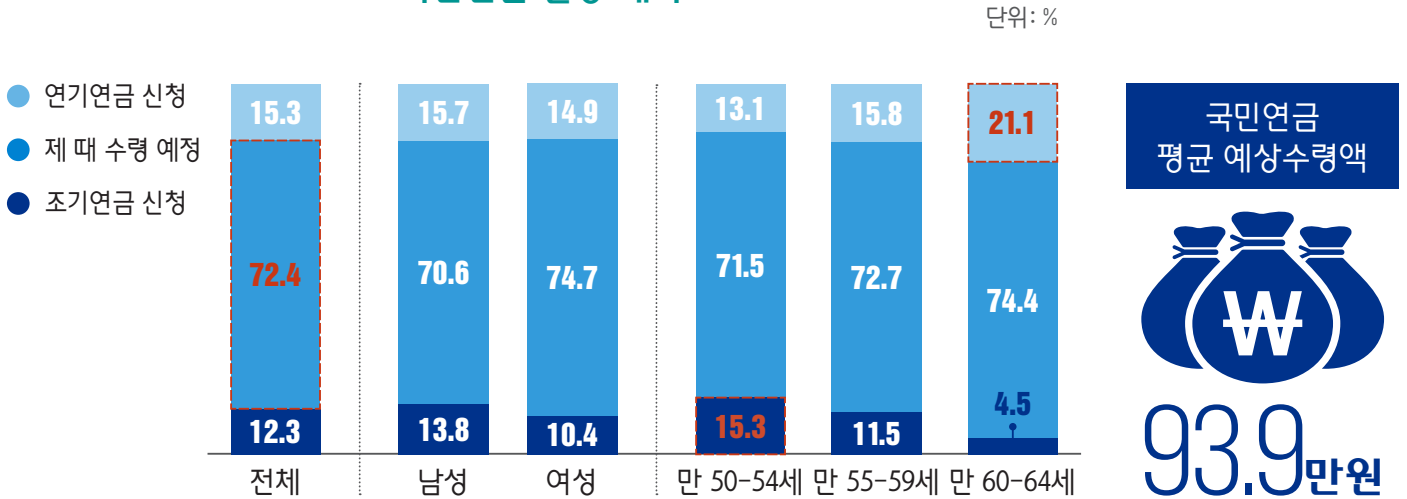


4. 자금운용계획

국민연금은 제때 받고, 경제활동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퇴직자의 72.4%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시기에 맞추어 제 때에 받겠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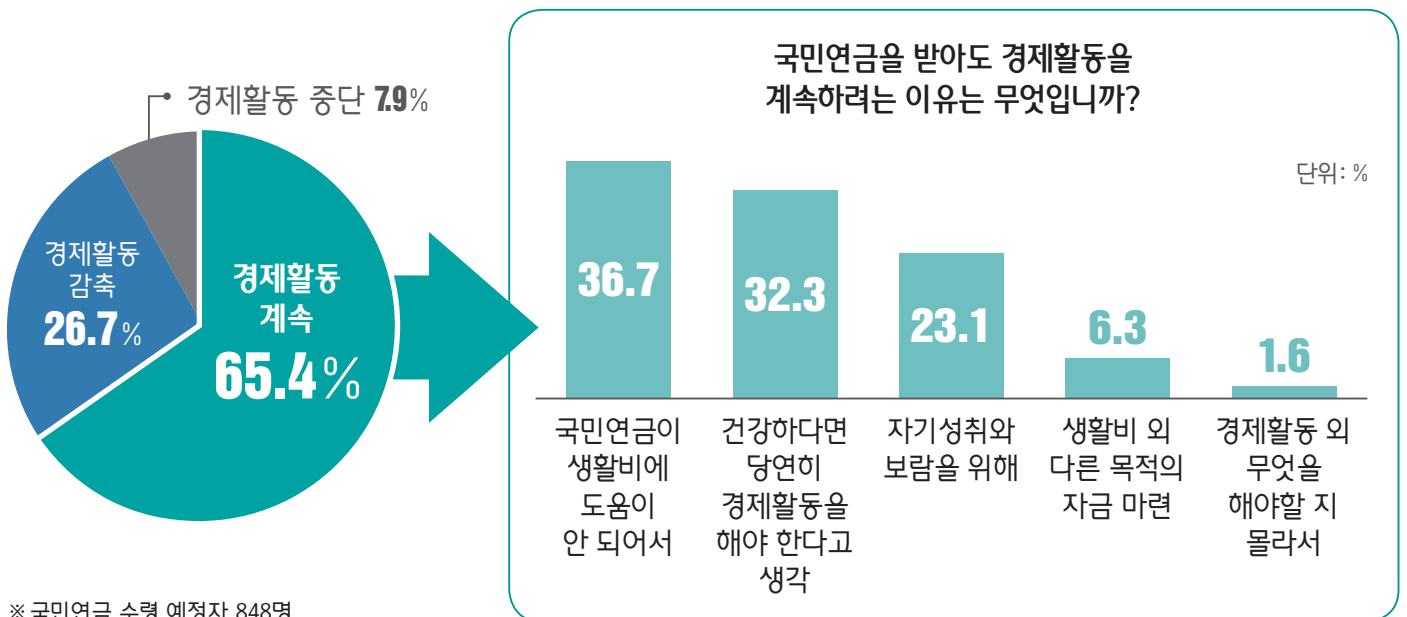
국민연금 활용 계획



※국민연금 수령 예정자 848명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퇴직자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유지할 전망

국민연금 수령 이후 경제활동 계획



4. 자금운용계획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적은 연금액·상속과 증여가 고민

퇴직자 대부분(73.5%)은 처음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거나 노후자금 부족해지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

주택연금 이용 계획

계획 없음 26.5%	노후자금 부족 시 활용 54.4%	활용 예정 19.1%
-----------------------	------------------------------	-----------------------

※ 주택 보유자 755명

평균 신청 연령
68.0세

평균 연금 예상액
157.3만원

활용 의향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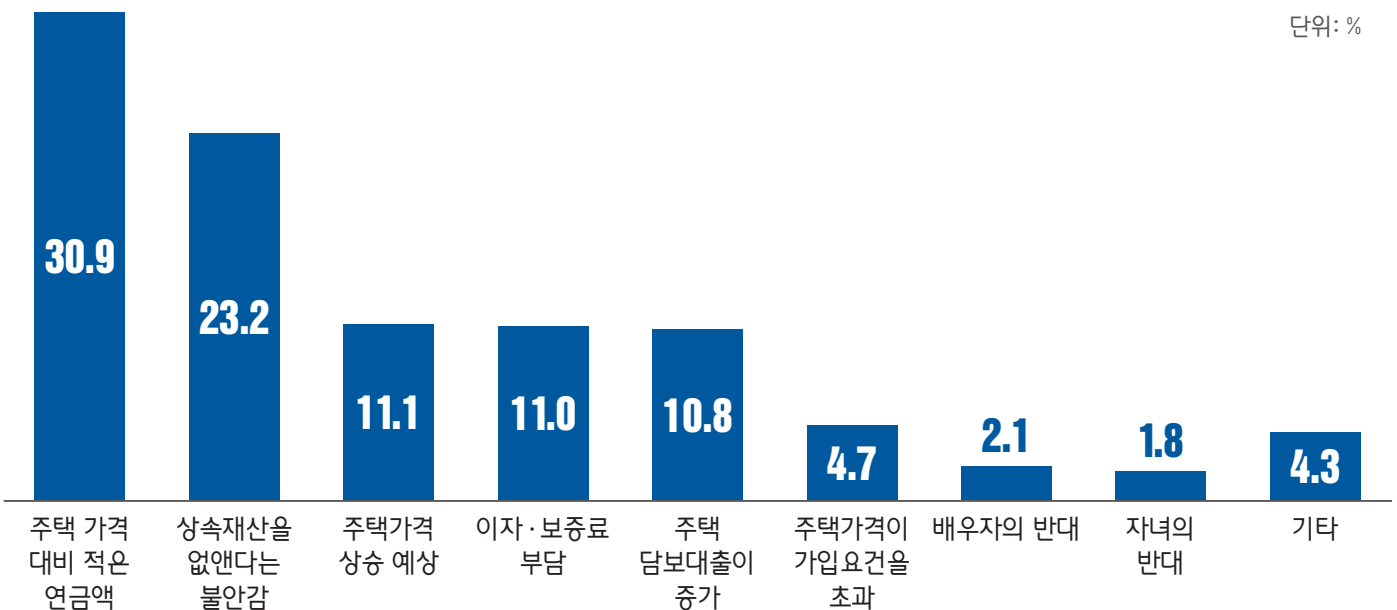
경제력을 끝까지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

“내 집에서 살면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했을 때 주택연금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녀들한테 바로 상속이 안 되고 내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기대 수명의 증가로 비상금(병원비)이 필요

“저희 때부터는 아이들한테 별로 줄 돈이 없다는 느낌의 얘기를 해요. 기대수명이 너무 늘어났고 계속 아프면서 병원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죠.”

주택연금을 활용할 때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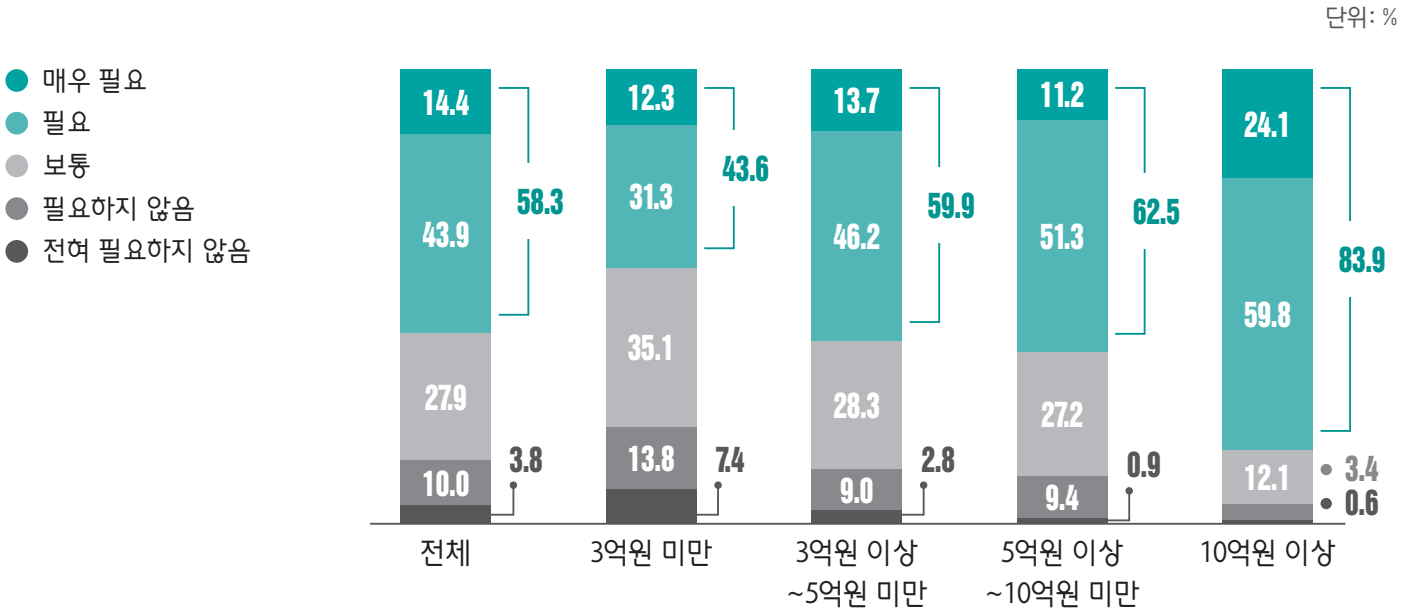


4. 자금운용계획

상속·증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상속·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으며 보유자산이 클수록 그 비중이 높아짐

보유자산 규모별 상속·증여 준비에 대한 인식



특히 노후자금이 충분한 퇴직자의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 희망 영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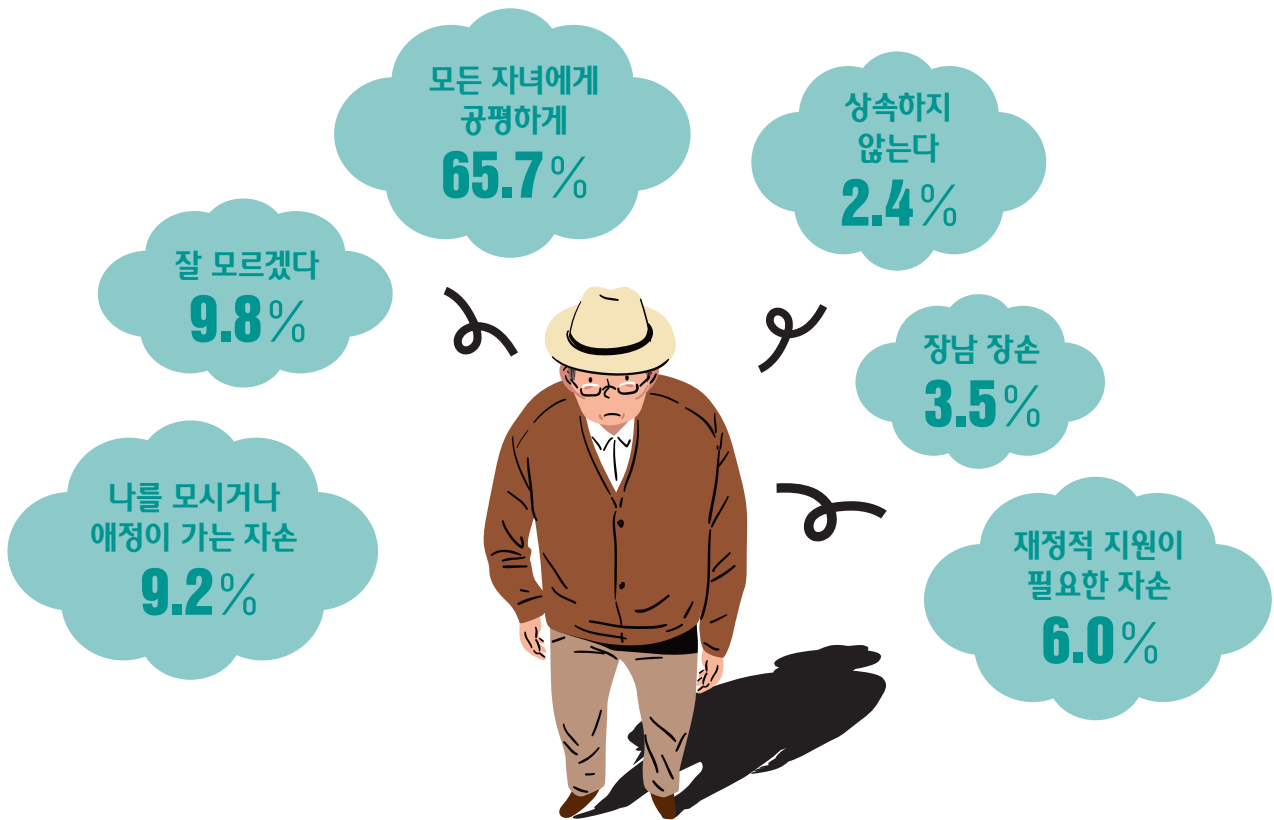
영역	전체	노후준비 수준	
		충분	보통·불충분
보험	35.4	25.6	36.3
온퇴자산 운용	33.2	35.4	33.0
세금 관리	26.9	54.9	24.4
부동산 관리	24.1	30.5	23.5
상속 및 증여	21.8	50.0	19.3
필요 없음	27.3	22.0	27.8

4. 자금운용계획

상속·증여는 대체로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현금 半 부동산 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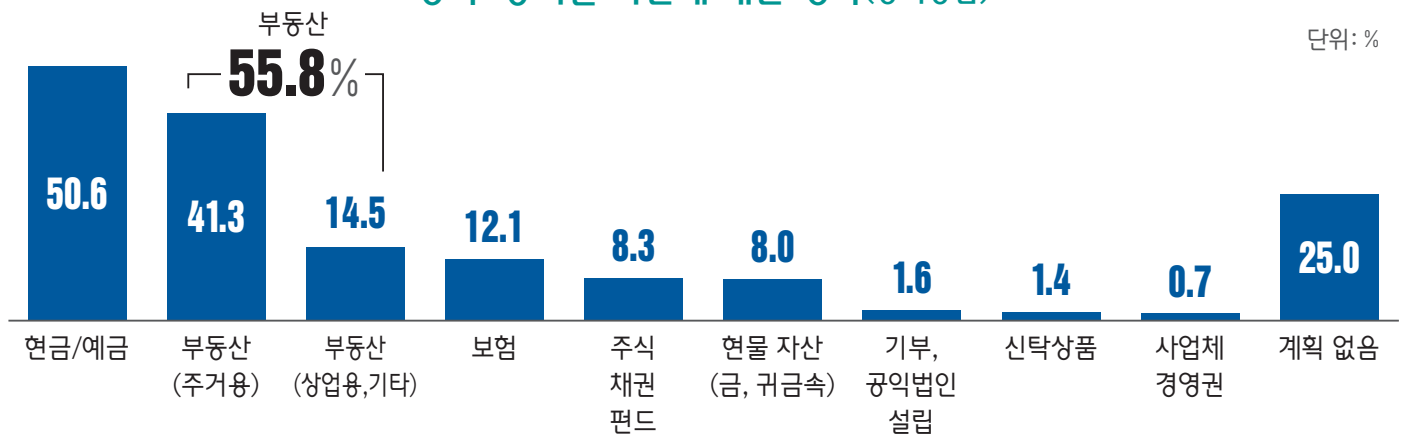
대부분(65.7%)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상속을 원하지만, 나를 모시거나 애정이 더 가는 자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더 많이 남기겠다는 생각도 있음

상속·증여할 대상자에 대한 생각



상속 증여할 자산은 현금/예금 50.6%, 부동산 55.8%를 차지함

상속·증여할 자산에 대한 생각(중복응답)



노후걱정 NO, 金퇴족 비결 5가지

1. 金퇴족은 누구인가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연금에 일찍 가입하라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하라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하라

내 집 마련을 일찍 시작하라

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자

3.

1. 金퇴족은 누구인가

金퇴족은 평균보다 월 56만원 더 지출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에서 어려움은 덜 느껴

金퇴족(金退族)

金퇴족이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50대 이상 퇴직자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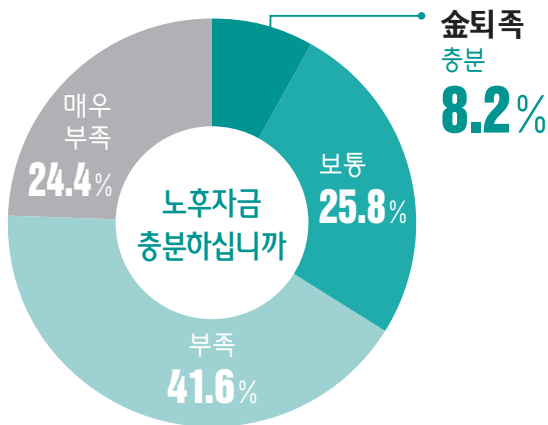
퇴직과 동시에 노후준비를 마친 金퇴족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는 金퇴족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자산을 관리했는지, 다른 퇴직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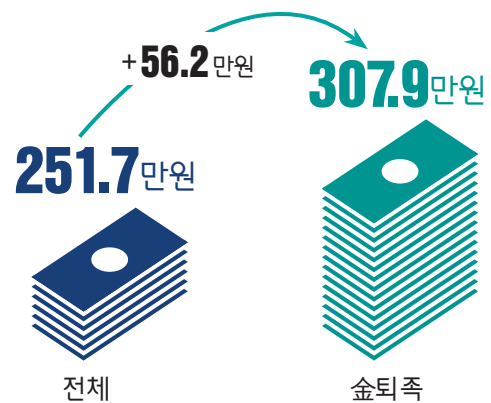
조사대상 중 '준비된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퇴직자들이 바로 金퇴족

金퇴족의 월 생활비는 평균 308만원으로 전체 퇴직자보다 56만원 더 지출

노후자금의 충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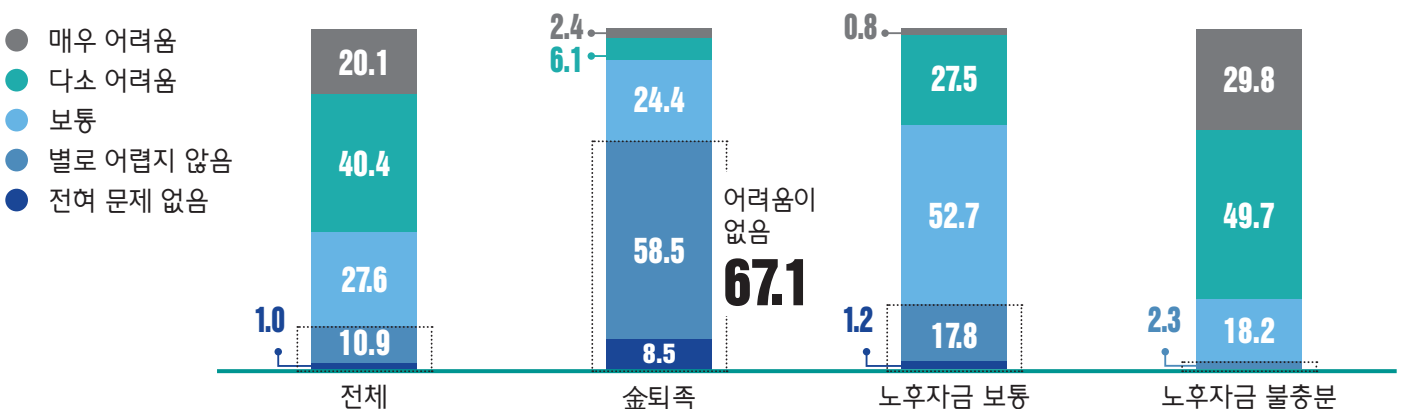


평균 월 생활비 지출



金퇴족의 67.1%가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

현재 생활비 마련에서 느끼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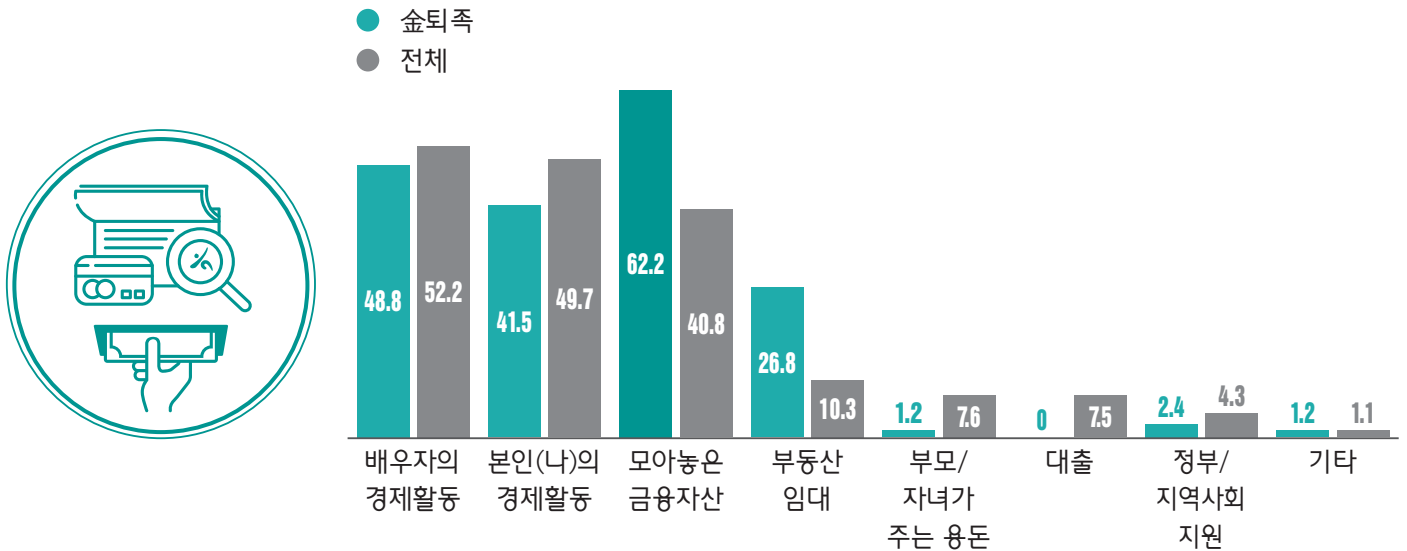
1. 金퇴족은 누구인가

金퇴족은 경제활동보다 금융자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며 그 중 연금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를 충당함

金퇴족은 생활비 마련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보다 '금융자산(62.2%)'을 가장 많이 활용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요 방법(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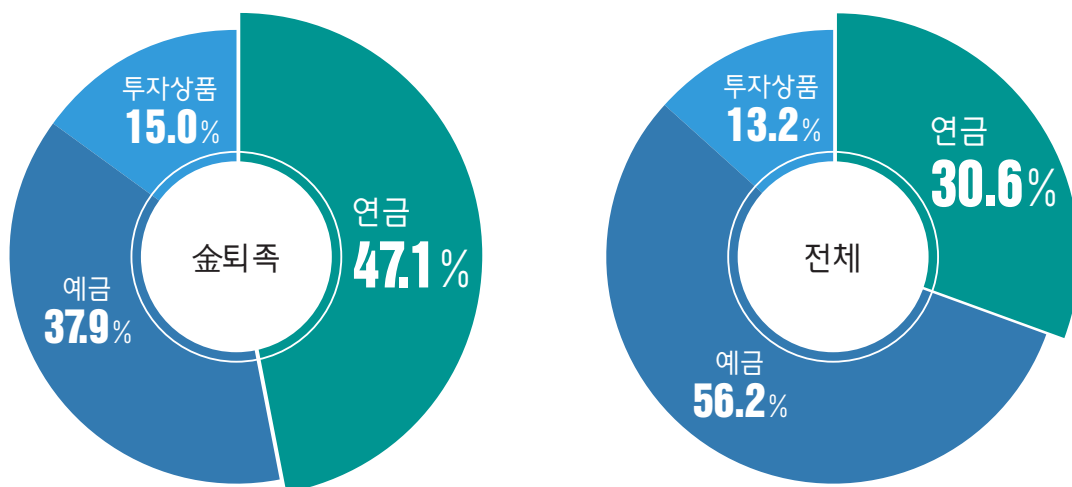
단위: %



金퇴족이 생활비로 꺼내 쓰는 금융자산 가운데 연금(47.1%)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여기서 연금이란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성 보험)을 말함.

생활비에 쓰이는 금융자산의 비중



연금 | 퇴직연금,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보험
 예적금 | 입출금 계좌, 예금 및 적금
 투자상품 | 주식, 채권 및 펀드 등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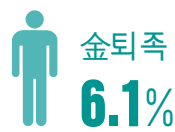
첫째, 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노후준비 완성을 앞당겨라

金퇴족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외에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외에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였나

35세가 되기 전에 노후준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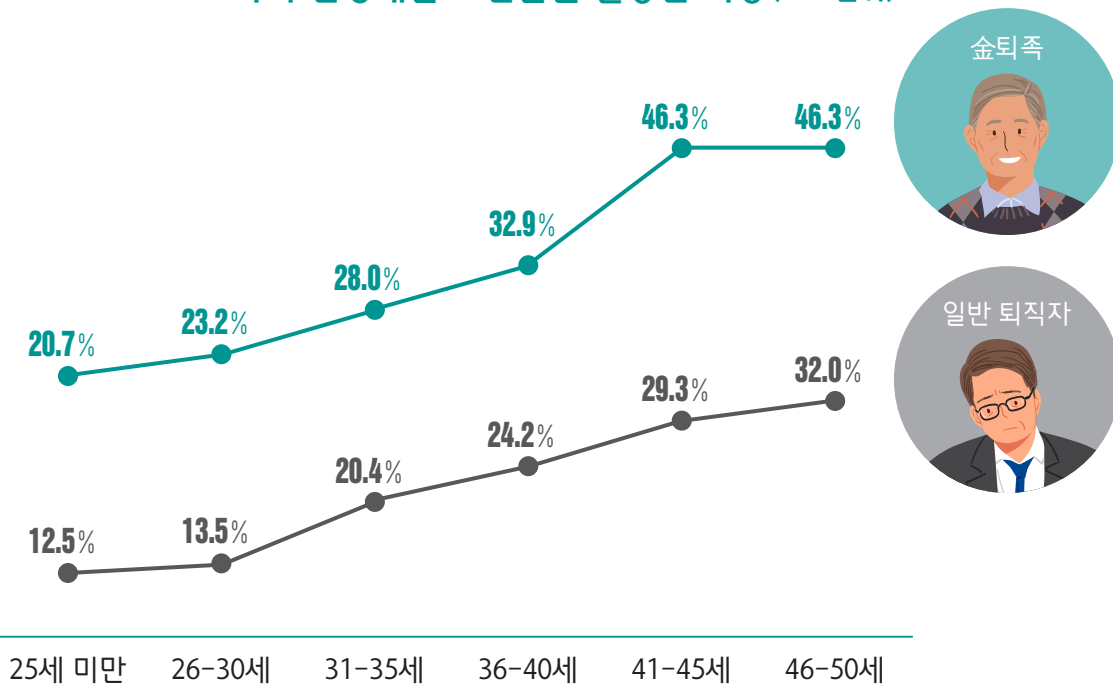
노후준비를 한 적 없다



金퇴족의 경우 과거 젊을 때부터 연금을 활용하기 시작하며, 이후에도 연금으로 저축해 온 경우가 많음

※여기서 연금이란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성 보험)을 말함

과거 연령대별로 연금을 활용한 비중(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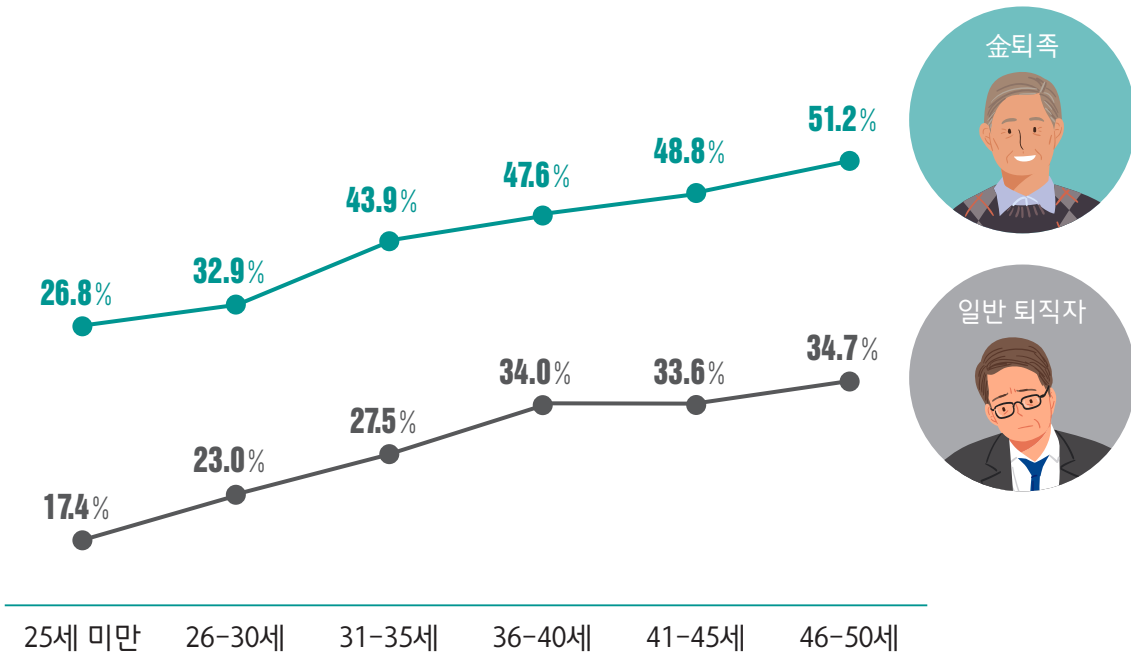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둘째,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한다

金퇴족은 예금만이 아니라 투자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자산의 증식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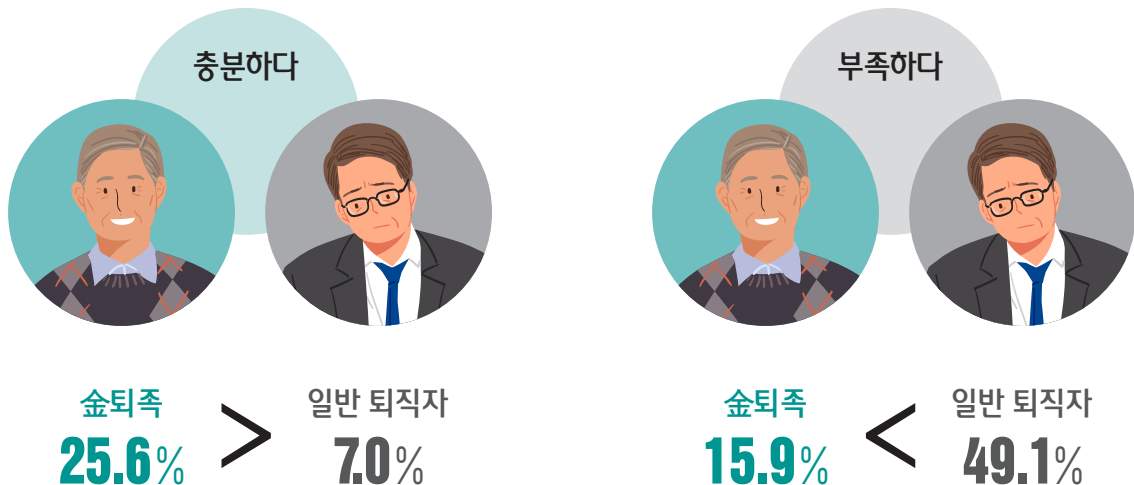
※투자금융자산이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말함

과거 연령대별 투자금융자산 운용 경험



金퇴족은 일반 퇴직자 집단에 비해 투자지식과 관련 정보가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도 더 많음

투자지식과 정보보유에 대한 자신감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셋째,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하라

金퇴족은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 다양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함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설명회

“제가 00은행에 거래를 하니까 제 담당이 펀드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좌담회 같은 것, 투자 설명회 그런 것도 해 주더라고요.”

지인의 소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났거든요. 다가가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크니까. 좋은 친구 만난 거죠. 계산해 주고 하니까.”



금융회사



지인



자산관리
정보를
어디서
찾으세요?



인터넷



책

적극적인 인터넷 검색

“투신사나 제2금융권에 이율 높은 한정판매 상품들 관련해서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수시로 살펴봐요.”

다양한 경제·재테크 서적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인터넷 정보도 많이 나오고, 제가 또 서점을 갔었어요. 00문고, 시간이 나면 가거든요. 수익형 부동산, 요즘에 정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세법, 그런 것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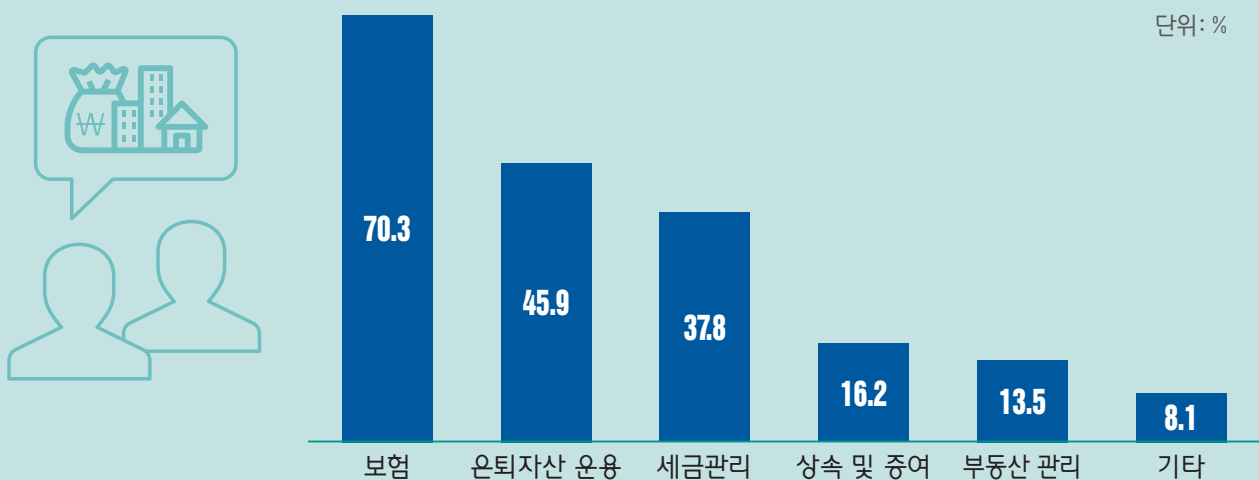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셋째,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하라

金퇴족 가운데 절반 가까이(45.1%)가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해본 경험이 있으며, 보험뿐만 아니라 은퇴를 대비한 자산운용 방법, 세금, 상속문제에 대해 상담함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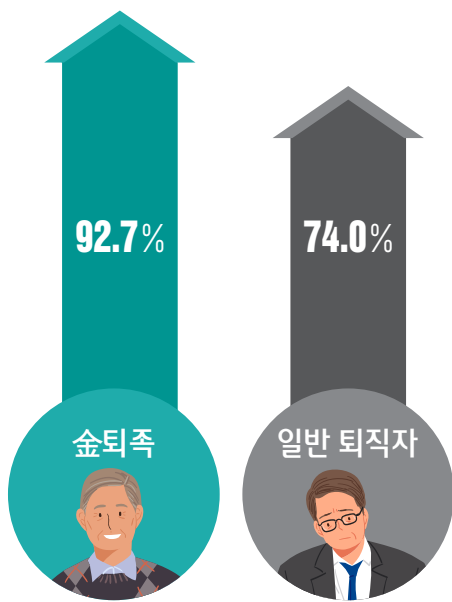
金퇴족의 전문가와 상담영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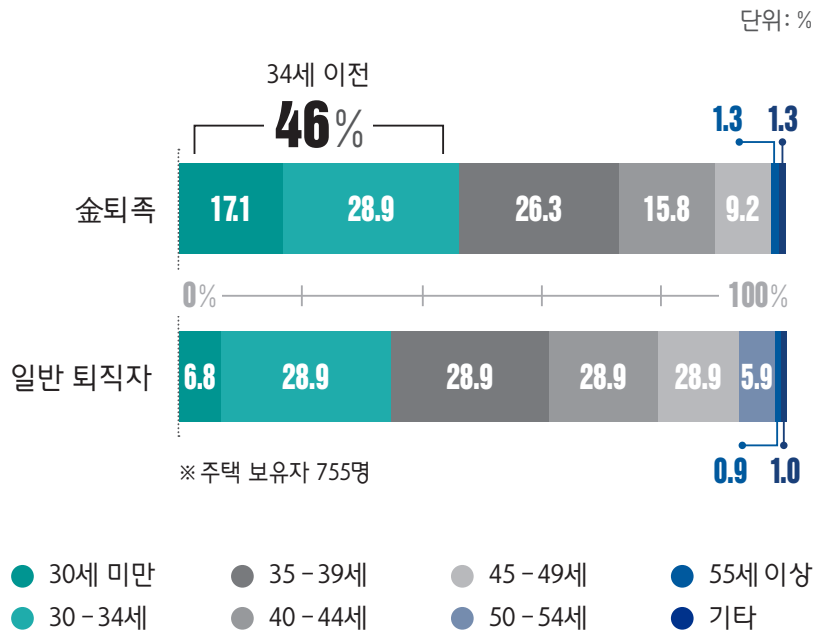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넷째, 내 집 마련으로 주거안정성과 비상 노후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라

金퇴족 대부분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 첫주택 마련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자가 주택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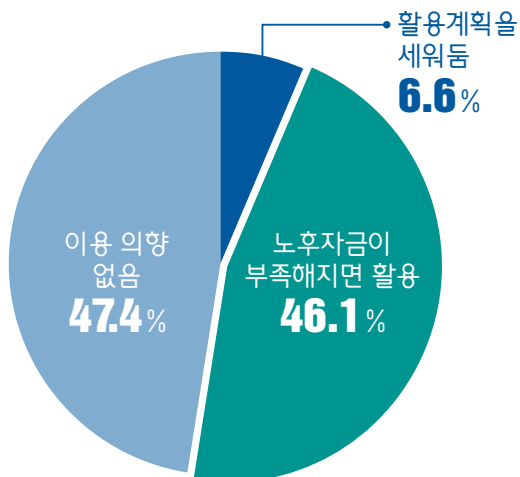


주택보유자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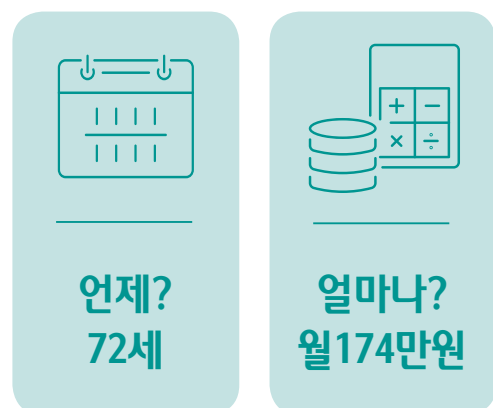


金퇴족의 절반 가까이(46.1%)가 노후資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임

金퇴족의 주택연금 활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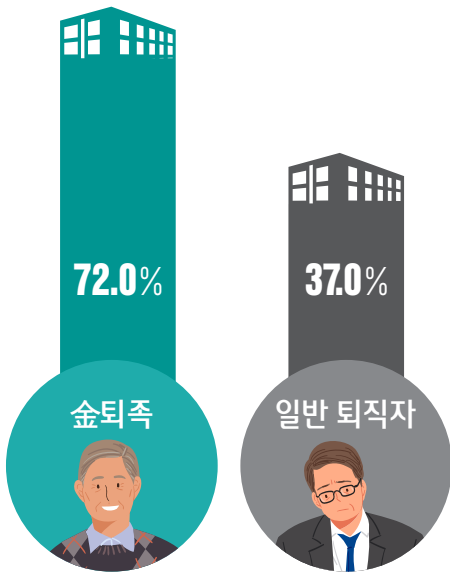
비상 노후재원으로 주택연금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까 예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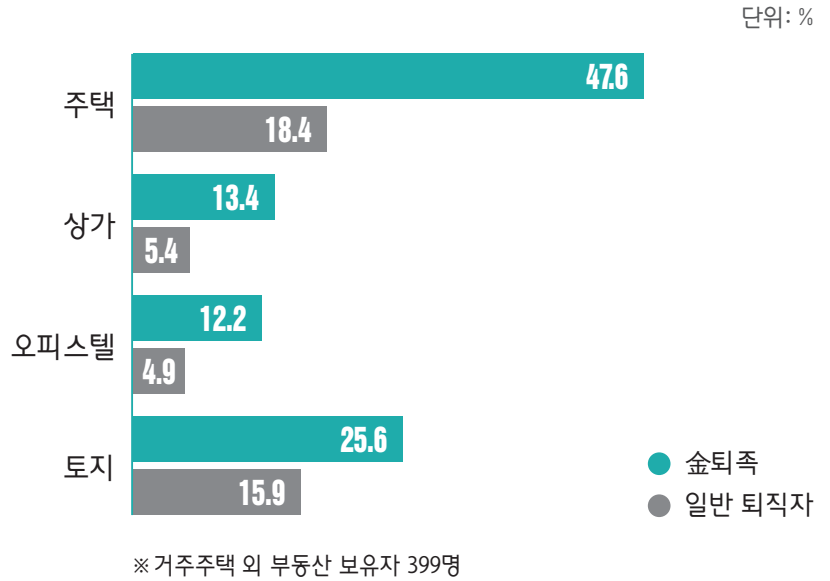
2. 金퇴족의 노후자금 마련 비결 다섯째, 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자

金퇴족의 72%가 거주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가지며, 임대소득으로도 생활비를 마련하여
경제활동·금융상품·부동산에서의 현금흐름 등 '소득원의 분산'을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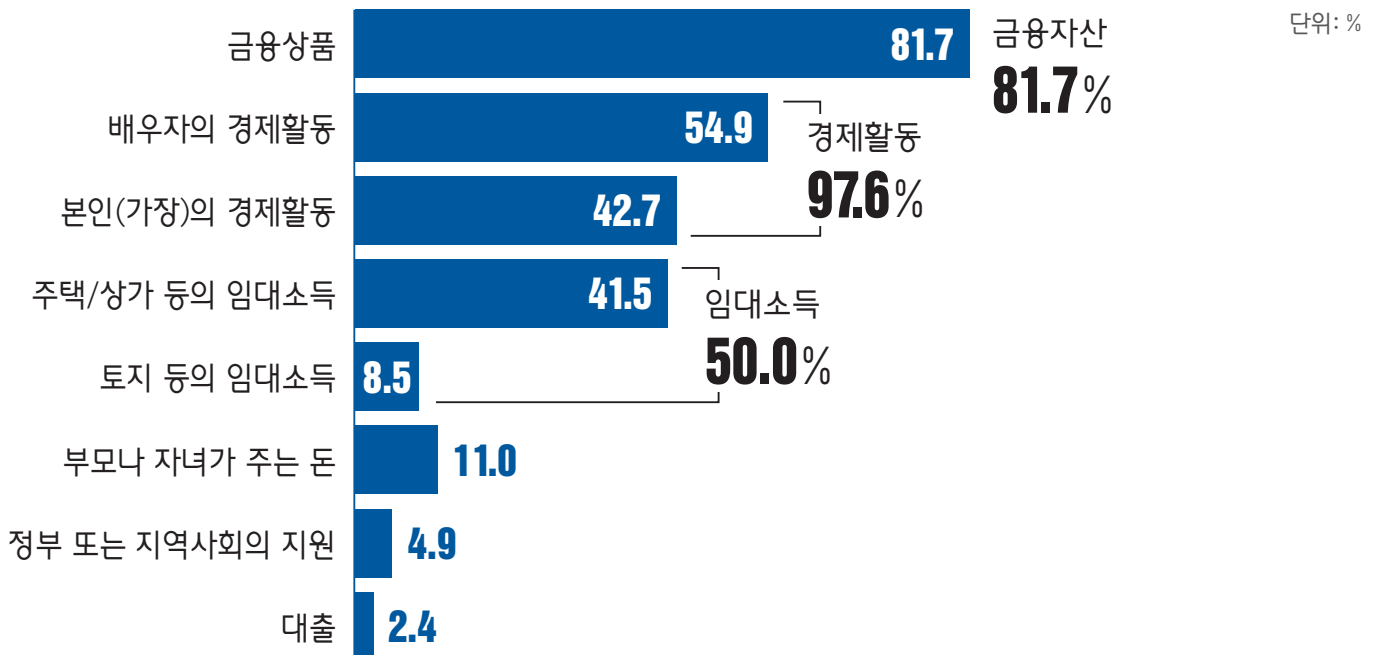
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



보유 부동산의 종류



金퇴족의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 주요한 생활비 마련 방법을 순서대로 5가지를 물어봄

4.

퇴직자의 사생활 이모저모

- | | |
|-----------|-------------------------|
| 1. 퇴직 후유증 |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오춘기(五春期) |
| 2. 여가생활 | 놀기는 아직 시기상조 |
| 3. 인간관계 | Business에서 인연(因緣)으로 |
| 4. 이주(移住) | 경제성이냐, 꿈이냐 |

hana

1. 퇴직 후유증

퇴직자 중 65.4%는 '퇴직 후유증'을 겪어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 있으며, 26.6%는 후유증이 현재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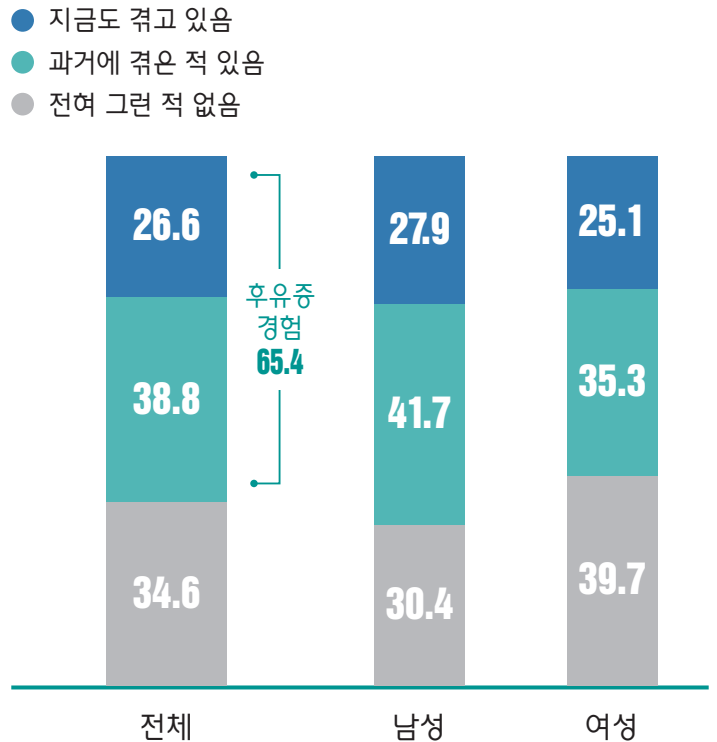
퇴직 후유증이란

퇴직 이후 감정·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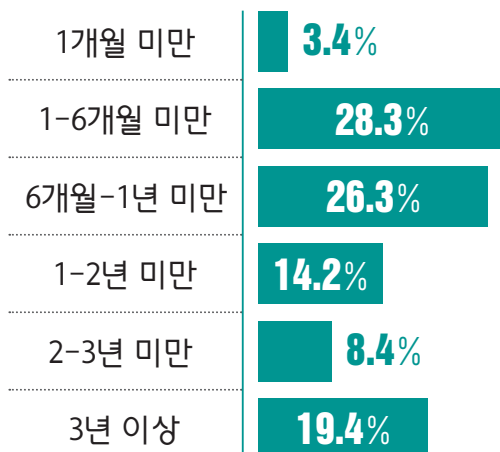
퇴직 후유증 경험 여부

단위: %



퇴직 후 1년 안에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 겪을 가능성이 커

퇴직 후유증 지속기간



※ 후유증 경험자 654명

후유증 지속기간이 1년 미만

현재 겪고 있는 경우 **41.0%** < 지금은 극복한 경우 **69.6%**

후유증 지속기간이 3년 이상

현재 겪고 있는 경우 **37.2%** > 지금은 극복한 경우 **7.2%**

1. 퇴직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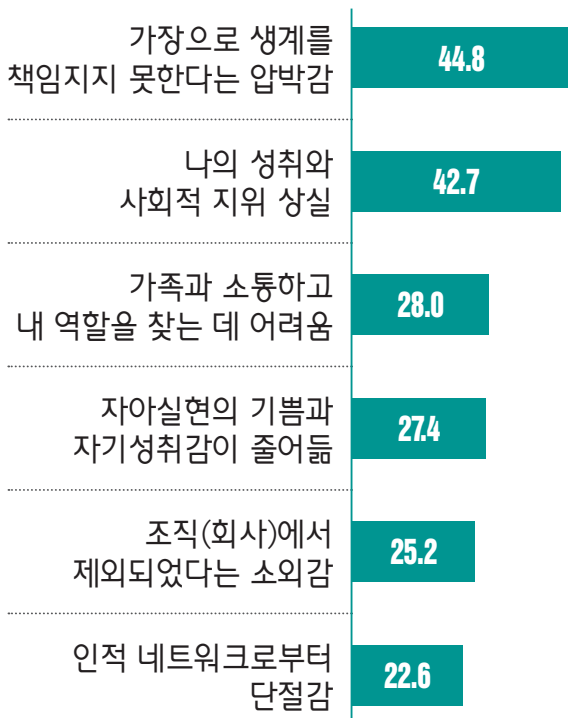
男 '가장 역할에 대한 압박'

女 '사회적 상실감'때문에 퇴직 후유증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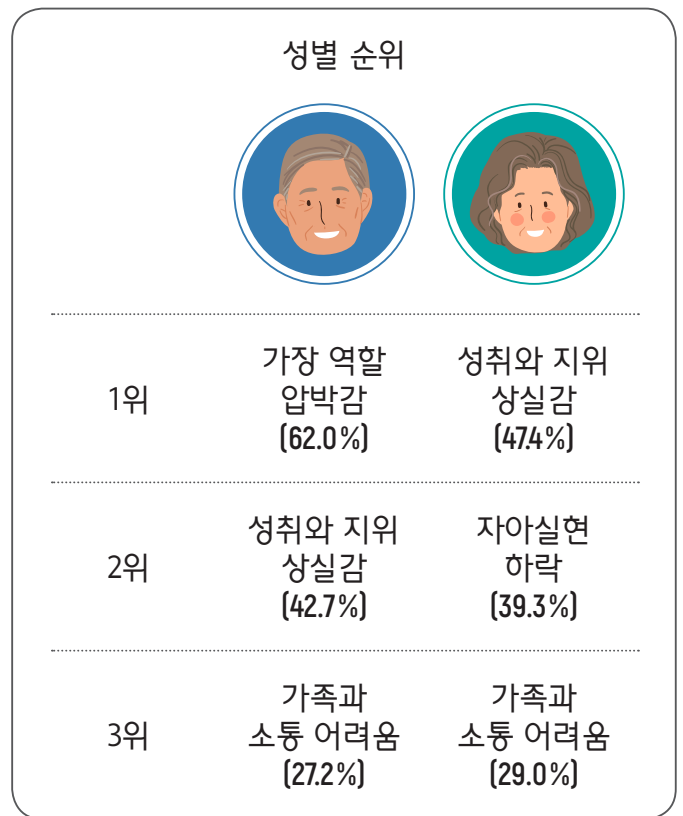
퇴직 후유증은 주로 퇴직 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압박감과 그동안의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잃는 데에 원인이 있음

퇴직 후유증을 겪은 이유(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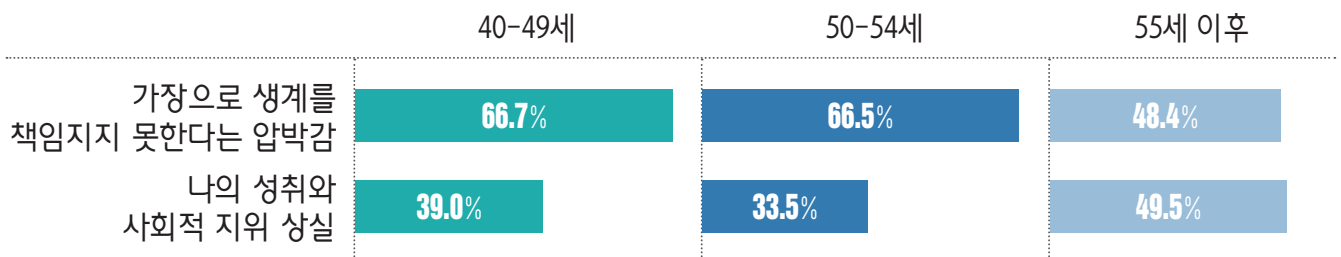


※ 퇴직 후유증 경험자 654명



55세 이전에 퇴직한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압박감을 가장 크게 느끼며, 55세 이후에 퇴직한 남성일수록 생계 뿐만 아니라 성취·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실감이 커짐

과거 퇴직 연령대별 남성이 퇴직 후유증을 겪은 이유(1~2순위)



※ 후유증 경험 남성 3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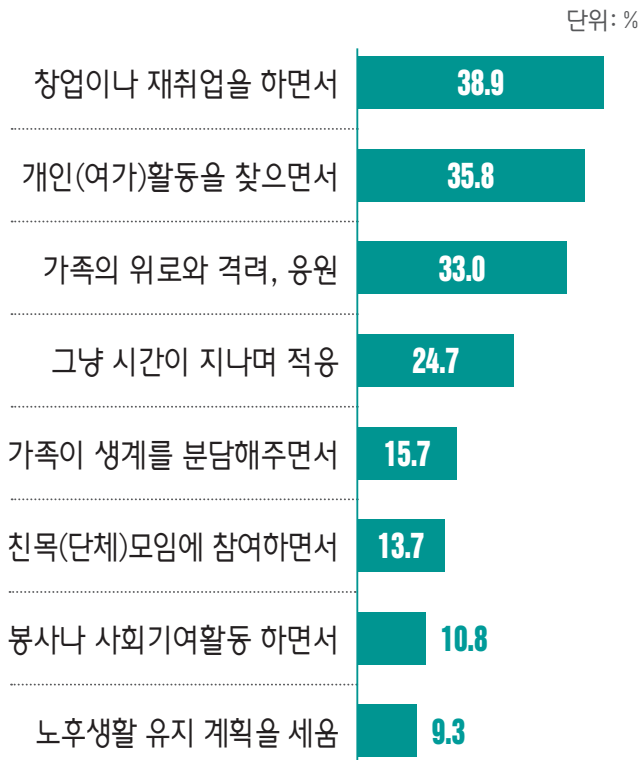
1. 퇴직 후유증

男 ‘경제활동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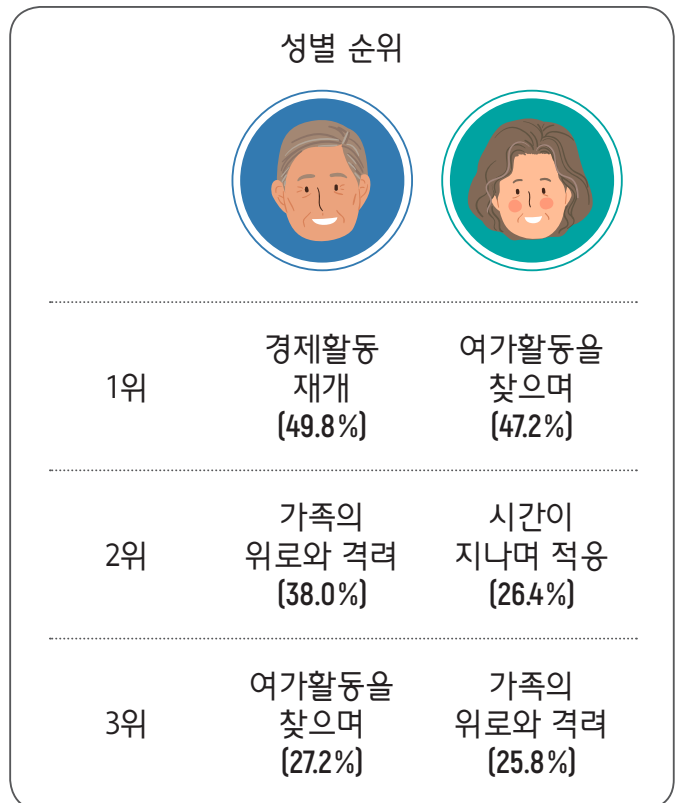
女 ‘여가활동 찾으며’ 퇴직 후유증 극복

남성은 경제활동을 재개(49.8%)하면서, 여성은 하고싶은 여가활동을 찾으며(47.2%) 극복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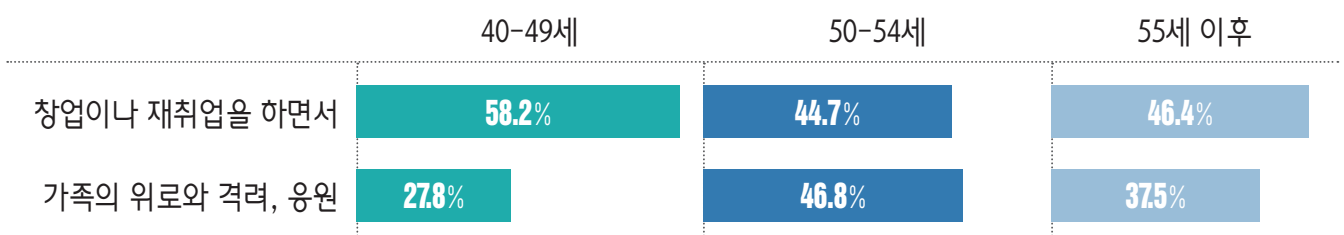


※ 퇴직 후유증 극복한 퇴직자 388명



남성에게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 응원을 받는 것 역시 후유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됨
특히 50대 이후 퇴직한 남성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지지’가 더욱 중요

과거 퇴직 연령대별 남성의 후유증 극복 계기



※ 후유증 극복 남성 229명

1. 퇴직 후유증

배우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퇴직 후유증도 빨리 극복

퇴직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남녀는 퇴직 후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낀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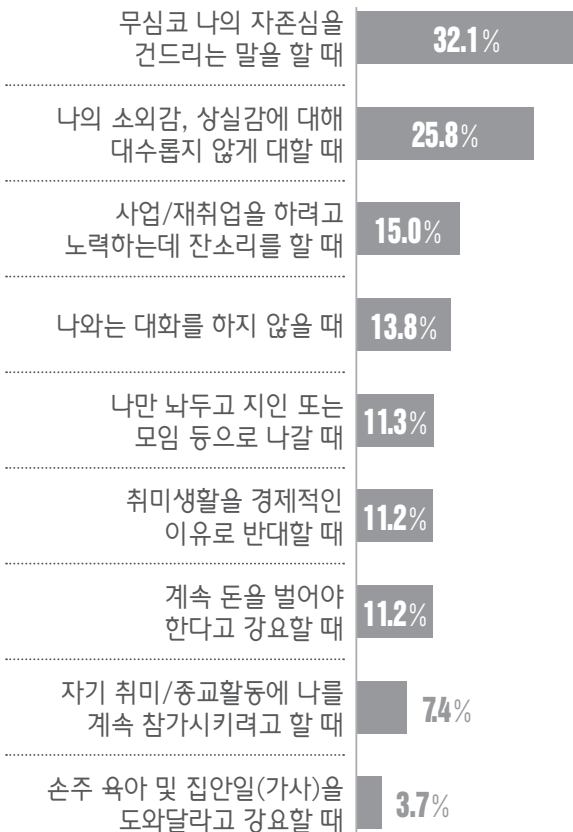
퇴직 후 배우자에게 섭섭함·불만 경험

단위: %

	퇴직자 전체	퇴직 후유증 경험 여부 별		
		현재 겪는 중	극복했다	전혀 없었다
남성	76.2	84.6	80.0	63.7
여성	72.2	87.4	79.9	57.6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나의 상실감 소외감을 대수롭지 않게 대할 때 섭섭함을 느낌

섭섭함·불만을 느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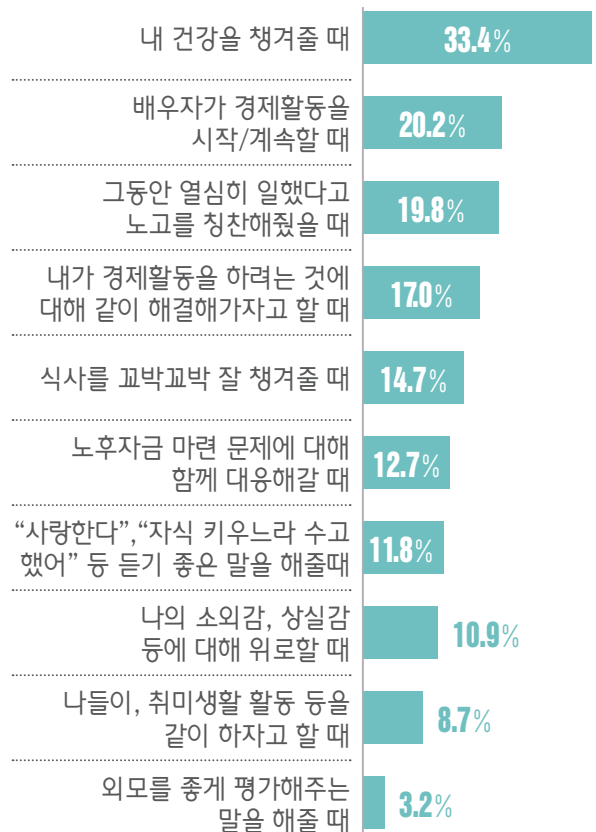
퇴직 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낀 적 없는 경우

단위: %

	퇴직자 전체	퇴직 후유증 경험 여부 별		
		현재 겪는 중	극복했다	전혀 없었다
남성	9.4	14.6	7.1	8.2
여성	16.4	21.8	11.8	17.6

건강을 챙겨줄 때, 경제활동을 계속(시작)하는것,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줄 때 고마움 느껴

고마움을 느낀 때



1. 퇴직 후유증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뒤, 2명 중 1명은 가끔 우울·불안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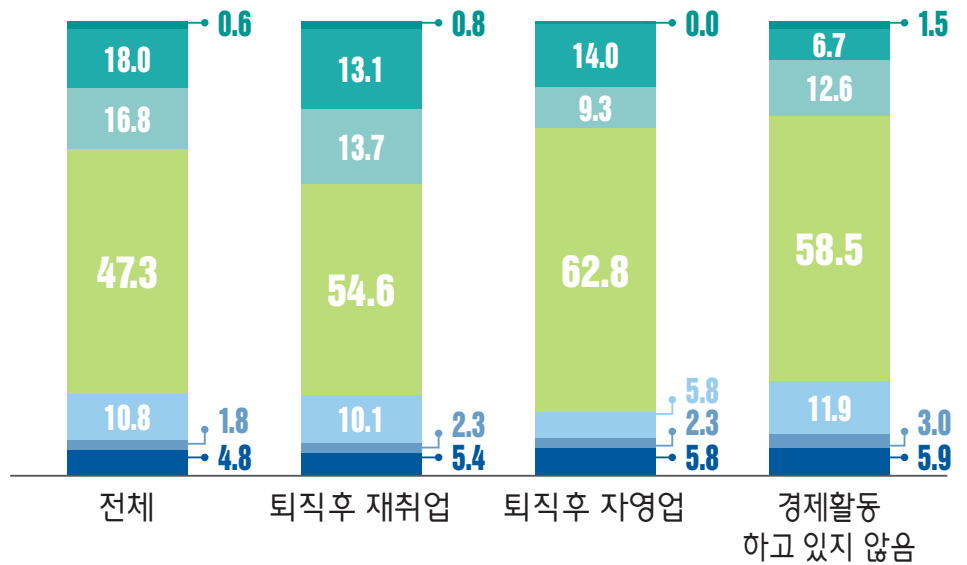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라도 자영업보다 재취업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 후유증을 겪고 난 이후 현재 마음 상태

단위: %

- 기쁨이 넘치는 상태
- 대체로 즐겁고 활기참
- 평온하고 기분 좋음
- 대체로 괜찮은데 가끔 우울·불안
- 때때로 우울하거나 힘들
- 자주 울화가 치밀고 있음
- 모르겠다

※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388명



2.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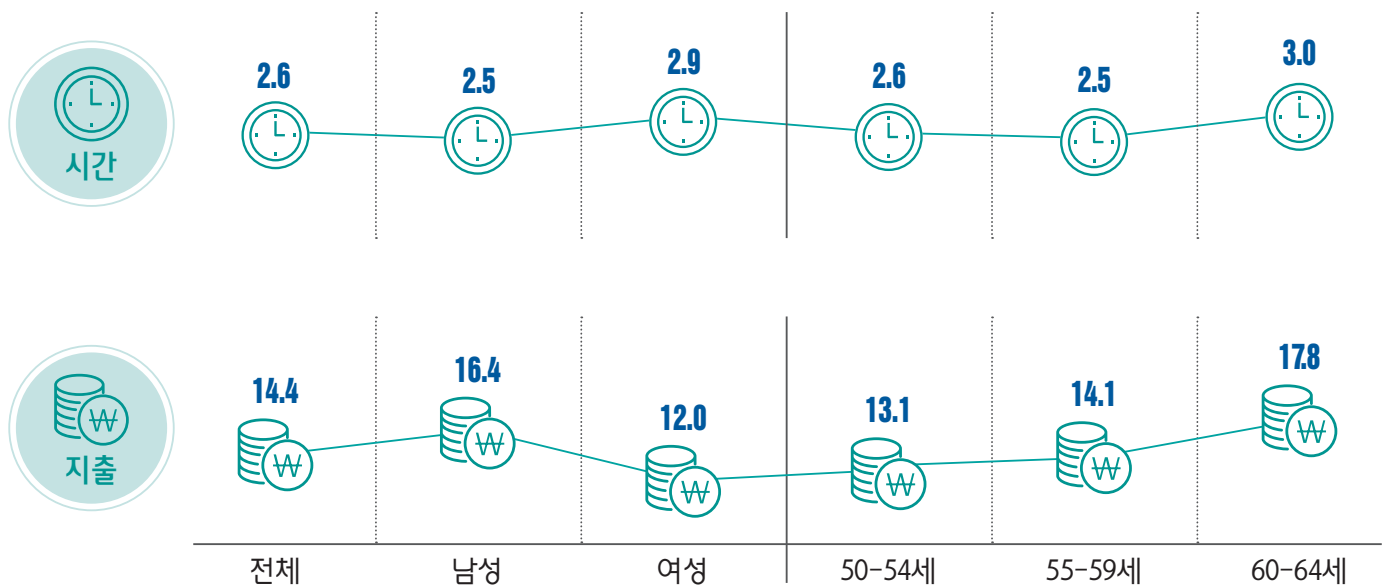
여가로 하루 2.6시간 보내고 월 14만원 지출

여가는 남성(2.5시간)보다는 여성(2.9시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고
지출액은 남성(16만원)이 여성(12만원)보다 많음

※ '여가'란 일(가사)과 먹고 자는 것 등 생리적인 필수시간을 제외하고, 스포츠, 취미, 휴양 등 개인 뜻대로 쓰는 시간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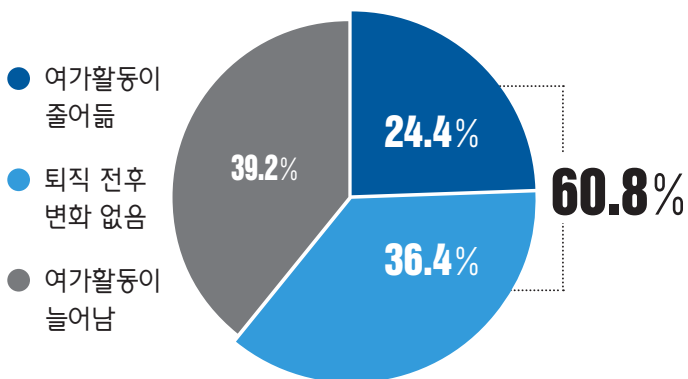
평일 평균 여가시간과 월간 평균지출

단위: 시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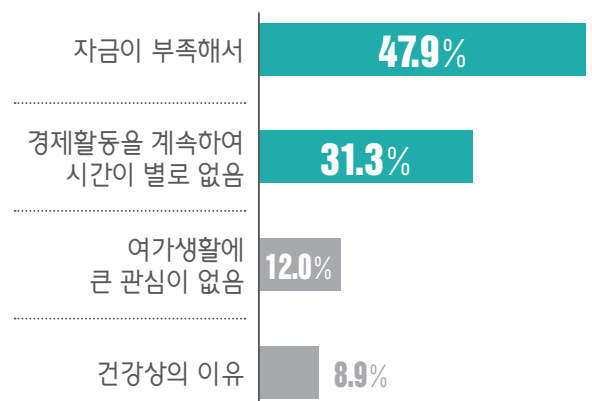


60.8%는 주로 시간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이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퇴직 후 여가생활 변화



여가생활이 늘지 않은 이유



※ 여가생활 유지·감소자 6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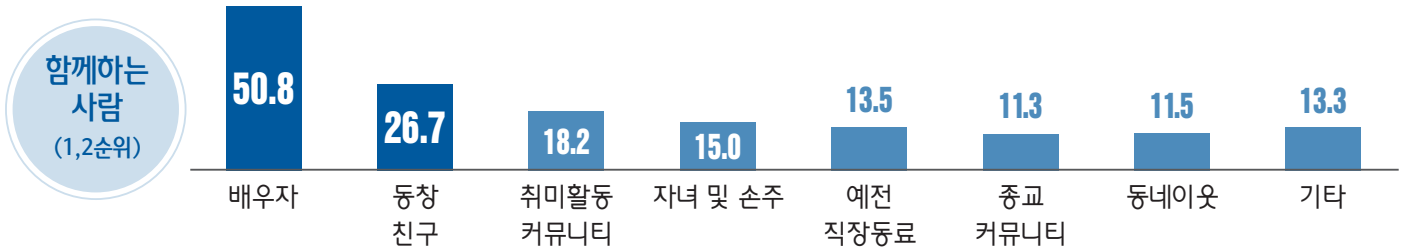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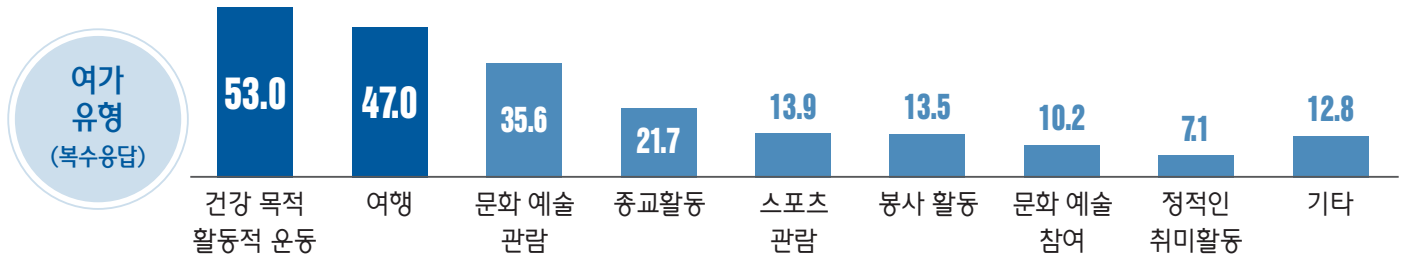
2. 여가생활

여가는 주로 배우자와 함께 운동 또는 국내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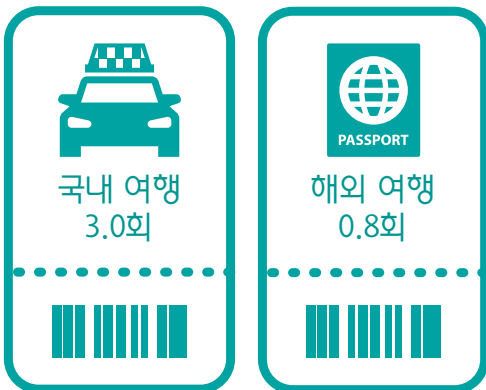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국내·외 여행'으로 여가생활을 즐기
여가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은 배우자 > 친구 > 동호회 커뮤니티 구성원 순

현재 하고 있는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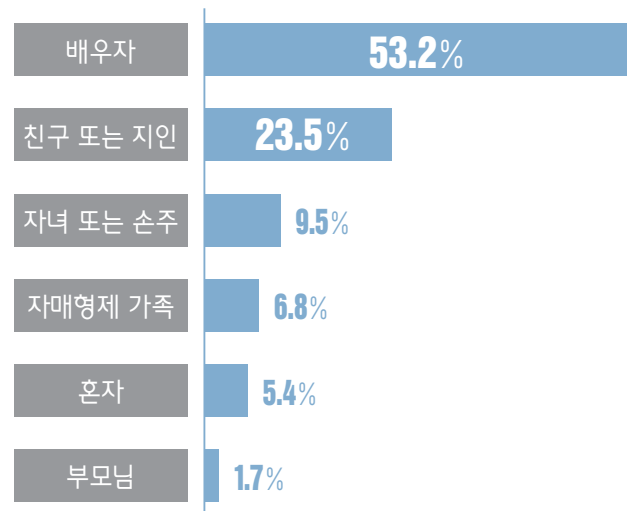
단위: %



지난 1년동안 국내/외 여행 횟수



지난 1년동안 국내/외 여행 함께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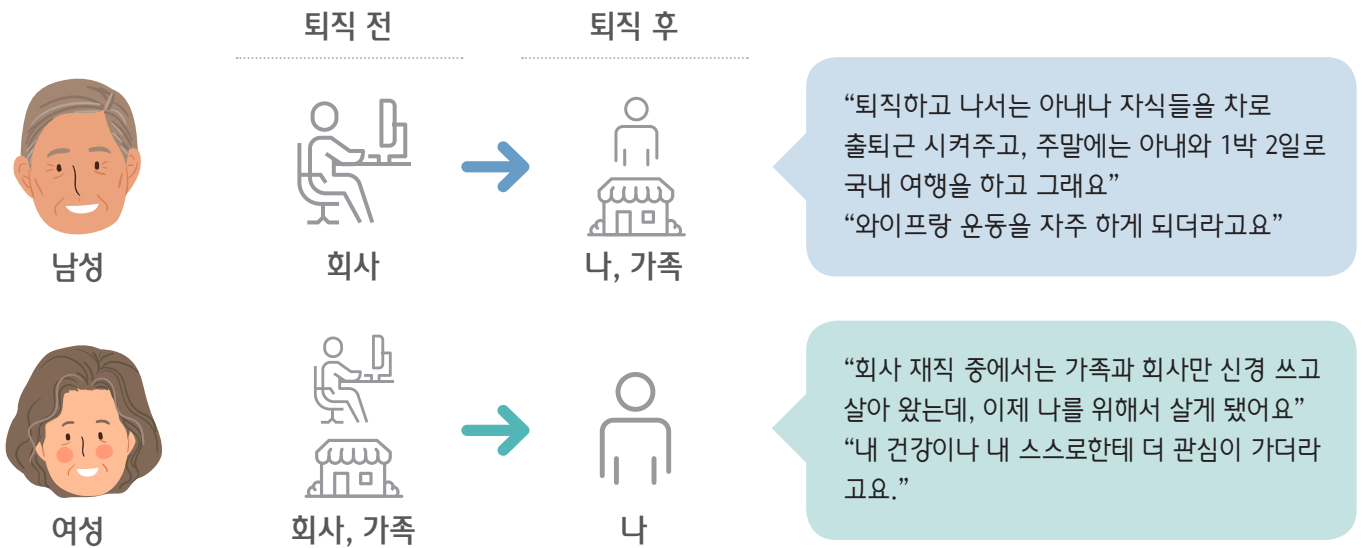


3. 인간관계

퇴직 후 관심사가 '회사'에서 '나' 또는 '가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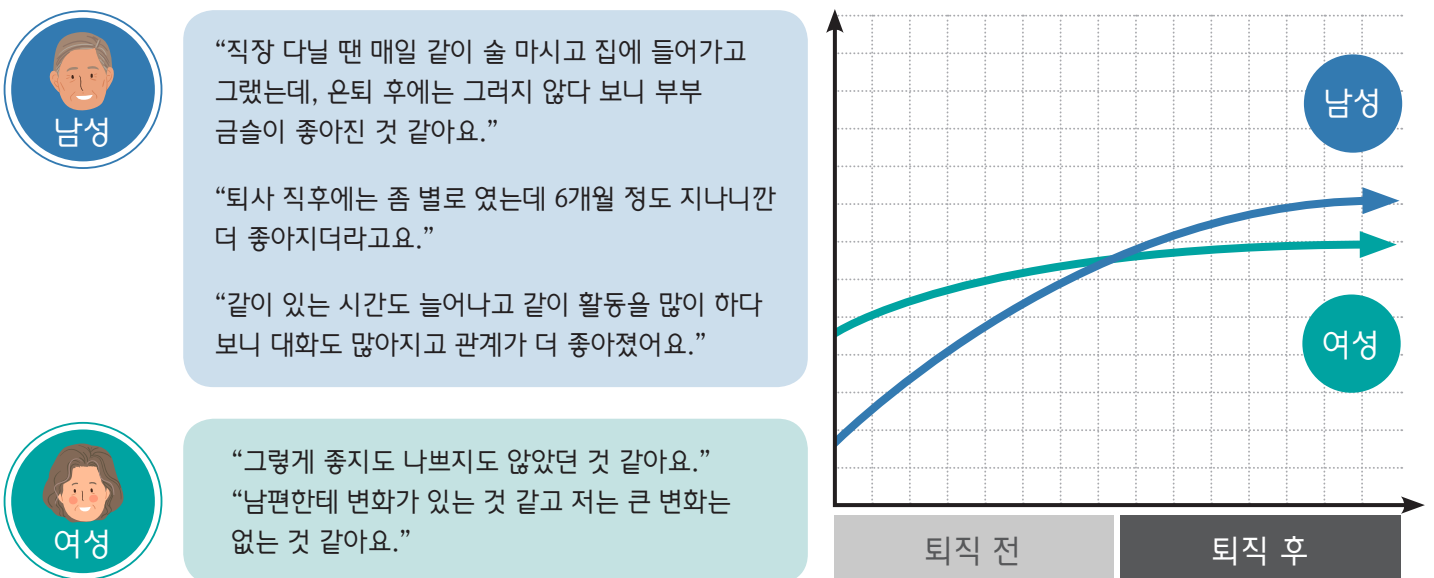
남성은 퇴직 전 '회사'에서 퇴직 후 '나'와 '가족'으로 관심사가 이동하며 여성은 '회사'와 '가족'에서 '나'중심으로 전환

퇴직 후 관심 대상의 변화



관심사의 변화를 반영하듯, 여성보다 남성이 부부관계의 변화를 더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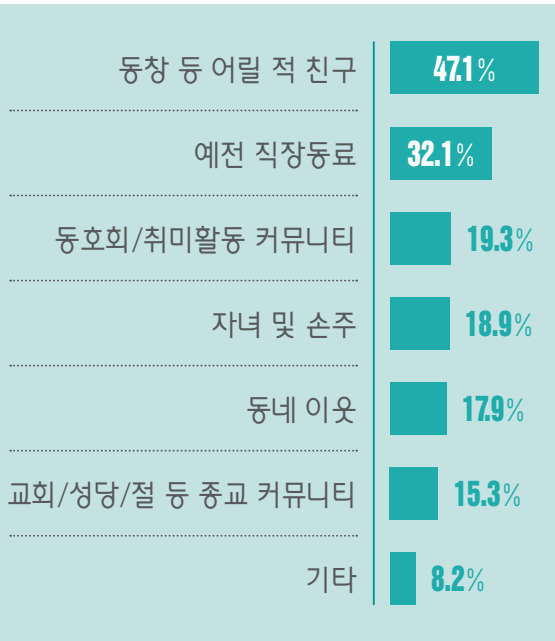


3. 인간관계

퇴직 후 男, 옛 인연 찾기와 女, 새 인연 만들기

퇴직 이전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퇴직 이후 학창시절 친구 또는 동호회 커뮤니티로

배우자 이외에 가장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지금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가깝죠, 직장동료들도 연락은 하지만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만 하지 않죠”



“주로 직장, 사회 생활 하면서 만난 관계가 정리 되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

만남 횟수 평균
월 3.62회

연락 횟수 평균
주 3.02회

“구조 조정으로 퇴사한 상황이라 기존 직장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퇴직하고 산악회나 도서관에서 만나는 친구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편이에요”

남성은 주로 동창(친구), 옛 직장동료 등 알던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임에 반해

여성은 동창(친구), 직장동료부터 이웃, 가족, 종교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곳에서 관계를 찾음

배우자 이외에 가장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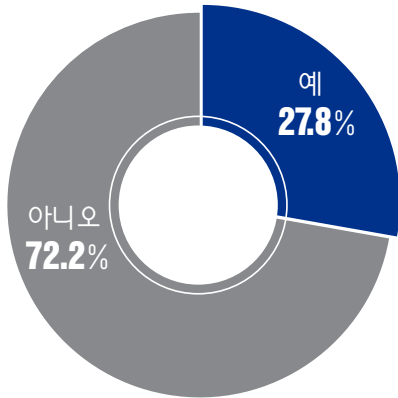
	남성	여성
동창 등 어릴 적 친구	55.2	37.3
예전 직장동료	39.0	23.7
동호회/취미활동 커뮤니티	22.8	15.1
자녀 및 손주	14.6	24.2
동네 이웃	10.4	27.1
교회/성당/절 등 종교 커뮤니티	9.5	22.4
기타	6.0	10.9

4. 이주(移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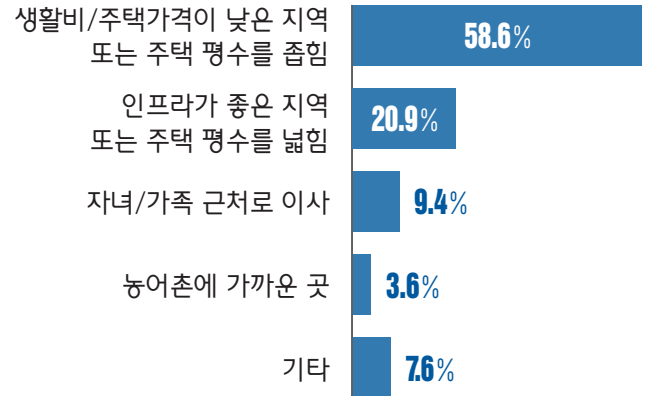
10명중 3명은 퇴직 후 이주, 이중 절반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

이주한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58.6%) 생활비·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또는 주택 평수를 줄여서 이사

퇴직 후 이사 여부



이사한 곳



※ 퇴직 후 이주자 278명

은퇴준비가 잘된 경우일수록 인프라가 더 좋은 지역이나, 주택을 넓혀 이주함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사는 퇴직자는 자녀·가족 근처로, 수도권·5대 광역시 거주자는 농어촌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

은퇴준비 수준별 거주지역별 희망 이주지

단위: %

	노후준비 수준		거주 지역	
	충분	보통·불충분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활비/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이주 또는 주택 평수를 줄임	29.2	61.4	57.3	56.5
도심, 강남처럼 인프라가 좋은 지역 또는 주택 평수를 넓힘	45.8	18.5	23.6	26.1
자녀/가족 근처로 이사	12.5	9.1	10.9	4.3
농어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4.2	3.5	1.8	8.7
기타	8.3	7.5	6.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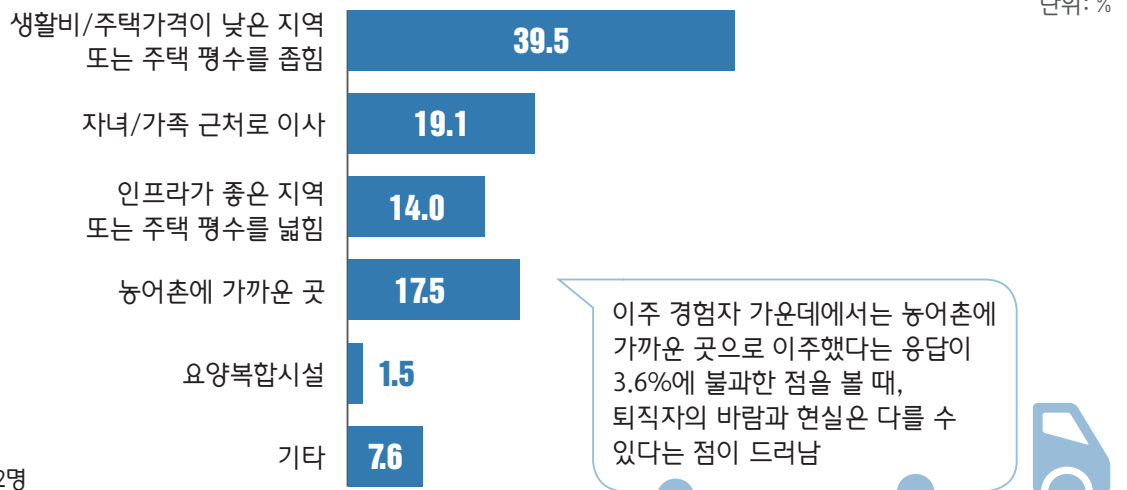
※ 퇴직 후 이주자 278명

4. 이주(移住)

미이주자의 경우 농어촌 이주에 대한 바람이 드러나

이사 안 한 퇴직자의 경우 생활비 덜 드는 곳이나 주택 평수를 줄여가고 싶다는 응답은 39.5%를 보였는데 앞으로 농어촌 가까운 곳에 가고 싶다는 응답이 17.5%나 차지함.

향후 이사 희망하는 곳



※ 퇴직 후 이주 미경험자 722명

노후준비가 잘된 퇴직자(金퇴족)만 보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나, 주택평수를 늘려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은퇴준비 수준별 거주지역별 희망 이주지

	노후준비 수준		거주 지역	
	충분	보통·불충분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활비/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이주 또는 주택 평수를 줄임	24.1	40.8	37.6	40.8
도심, 강남처럼 인프라가 좋은 지역 또는 주택 평수를 넓힘	27.6	18.4	20.1	18.4
자녀/가족 근처로	15.5	13.9	13.3	14.5
농어촌에 가까운 곳	19.0	17.3	17.5	17.4
요양복합시설	3.4	1.4	2.3	1.0
기타	8.3	8.4	9.1	8.0

단위: %

※ 퇴직 후 이주자 722명

카드사용 빅데이터로 본 50대의 소비

1.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50대의 한달 기본 생활비
2. 생활유형별 추가 지출액
3. 주요 도시별 50대의 생활비
4. 서울 지역별 소비 수준

5.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50대의 한달 기본 생활비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가 한달 기본생활에 쓴 금액은 약 145만원
기본생활비란 식비, 의료비, 의류/잡화, 교통, 통신 및 공과금과 기초적인 여가비를 말함

50대의 기본생활비 구성 및 지출 현황

1,446,979원



식비(15%) / 208,100원
마트, 편의점,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의료비 (19%) / 280,097원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류/잡화 (22%) / 319,227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교통 (8%) / 113,920원
주유, 택시, 교통카드 지출비 등



여가 (3%) / 43,041원
영화, 공연장, 목욕탕 지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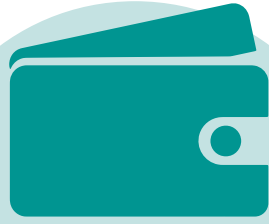
통신 및 공과금 (33%) / 482,594원
전화요금, 관리비, 유선/위성방송 등

[카드사용 빅데이터로 본 50대의 소비]

서울과 5대 광역시(인천·대구·부산·대전·광주)에 거주하는
50대(50~59세)의 하나카드 소비 성향 분석
카드 사용 기간: 2019.04 ~ 2019.11

(주1) 통신 및 공과금 업종은 하나은행 자동이체 거래내역
(주2) 용돈, 모임회비, 주거비(월세) 등 현금 거래 항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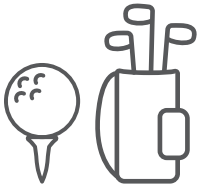
생활유형별 추가 지출액



기본 생활 비용
1,446,979 원



여가 유형별



골프를 친다면
+316,640 원



운동을 한다면
+319,722 원



여행을 간다면
+739,550 원



쇼핑을 한다면
+198,108 원

손자녀 지원 여부별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자녀나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415,519 원



이 모든걸 다한다면
3,436,518 원

주요 도시별 생활비 비교







5대 광역시 기본 생활비

50대의 기본 한달 생활비 지출액은 대구(161만원), 광주(153만원), 서울(148만원), 부산(148만원)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지출액

● 1위 ● 2위

단위: 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식비 	199,421	194,882	211,526	202,538	236,911	203,360
의료비 	284,655	243,921	298,088	299,709	291,938	263,056
의류 잡화 	311,800	325,541	360,988	323,684	403,427	316,908
교통 	116,502	107,065	110,397	109,062	114,012	116,847
취미 여가 운동 	41,700	42,963	47,440	52,673	50,457	40,229
통신 및 공과금 	526,406	486,801	579,494	488,026	430,549	444,825
합계	1,480,485	1,401,173	1,607,933	1,475,692	1,527,294	1,385,226
여가 유형 별 골프, 운동, 여행, 쇼핑을 한다면	월 1,574,020원 추가					
생활비 합계	3,054,505	2,975,193	3,181,953	3,049,712	3,101,314	2,959,246

서울의 지역별 기본 생활비

서울시 지역별 평균 생활 소비 금액

50대의 기본 한달 생활비로 강남구(165만원), 서초구(163만원), 용산구(161만원), 종로구(160만원) 순으로 높으며, 강동구(139만원)와 강북구(139만원)가 가장 낮게 나타남
기본생활비란 식비, 의료비, 의류/잡화, 교통, 통신 및 공과금과 기초적인 여가비를 말함

* 항목별 지출액 ● 1위 ● 2위

단위: 원

No	서울시구	식비	의료비	의류 잡화	교통	취미 여가, 운동	통신 및 공과금(*)	합계
1	강남구	225,479	368,736	351,212	129,764	48,965	526,406	1,650,562
2	강동구	176,318	251,956	284,032	116,019	36,285		1,391,016
3	강북구	208,907	254,771	261,020	103,028	37,715		1,391,847
4	강서구	184,813	268,024	302,139	116,219	38,426		1,436,027
5	관악구	173,613	253,288	293,687	109,947	37,889		1,394,830
6	광진구	191,494	281,059	291,783	107,667	41,884		1,440,293
7	구로구	184,425	272,824	294,138	113,451	38,644		1,429,888
8	금천구	188,944	283,873	313,036	108,536	40,401		1,461,195
9	노원구	216,120	245,878	260,181	113,648	37,029		1,399,263
10	도봉구	219,315	242,902	288,379	109,452	34,930		1,421,384
11	동대문구	190,277	265,455	311,037	107,791	42,156		1,443,122
12	동작구	175,477	280,671	305,740	115,367	38,433		1,442,093
13	마포구	191,897	292,023	312,783	119,346	42,795		1,485,250
14	서대문구	200,487	269,798	304,165	113,460	45,911		1,460,226
15	서초구	212,239	361,618	362,491	126,348	46,606		1,635,707
16	성동구	205,402	303,432	341,258	115,503	43,234		1,535,236
17	성북구	223,988	288,573	304,274	110,655	37,755		1,491,652
18	송파구	188,081	283,847	311,207	121,191	41,594		1,472,327
19	양천구	190,641	262,586	280,025	118,504	42,550		1,420,711
20	영등포구	178,503	279,360	318,915	117,292	39,123		1,459,600
21	용산구	211,923	308,189	394,479	124,659	51,110		1,616,766
22	은평구	216,863	274,605	276,528	113,029	38,601		1,446,031
23	종로구	219,703	311,757	372,999	117,819	51,409		1,600,093
24	중구	200,505	299,219	331,801	113,999	42,045		1,513,976
25	중랑구	193,234	254,937	288,455	110,986	37,874		1,411,892

 하나금융그룹 | 100년 행복연구센터